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AUG 19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02 1982년 8월 16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Monday, August 16,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구여권 소지자 출국불허

법무부, 일시모국방문시 공항서 경신명령

지난1일부터 새 여권규정이 발효됨에 따라 구여권을 지참하고 일시 귀국했던 교포들이 김포공항에서 출국을 정지당해 곤욕을 치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토론토총영사관이 13일 밝힌바에 따르면 신규여권 규정이 지난1일자 발효함에 따라 김포공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구여권 지참자에 대해 출국을 일절 허용치 않고 있어 구여권을 그대로 지참하고 일시 귀국했던 교포여행객들이 출국을 못해 적지 않은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에따라 구여권을 지참하고 귀국했던 교포가운데는 예정일자에 출국을 못해 부모의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하는가 하면 막대한 사업상의 손해를 입는 사례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것.

이같은 문제는 1일이후부터 구여권으로 귀국은 계속 가능하나 출국이 허용되지 않는데서 야기되고 있는데, 토론토총영사관측은 교포들이 일시 귀국을 할때나 기타해외지역을 여행할때는 구여권을 갱신한 후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했다.

총영사관의 여권담당 박종선영사는 "부득이한 경우가 생겨 구여권으로 급히 귀국을 한 교포들은 귀국 즉시 외무부여권과에 가서 갱신 신청을 하면 1~2주내에, 신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출국일자가 급할때에는 외무부 여권과에서 여행증명서를 1~2일내에 발급해 주기 때문에 이를 지참하면 신여권이 없더라도 출국시 하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없다"고 말했다.

▲ 레바논 전쟁의 비극.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침공으로 식수, 식량난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베이루트 시내 양로원 침상위에 몰골이 앙상한 2명의 어린이들이 누워있다. 이 양로원에는 영양실조에 걸려 죽어가는 어린이가 80명이나 있다고 한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수정은
강대국의 자만 노골화

(뉴욕12일=연합)세계2차 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한지 37년이 지난 뒤에 일본의 침략을 받은 아시아 각국들이 아직도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음이 드러났다. 재빨리 패전의 상처를 딛고 강대국이 된 일본은 다른 나라의 역사의 장에 신경을 쓸 필요를 안느끼고 있다고 12일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지가 1면 기사로 보도했다.

〈모니터〉지는 오랫돈안 묻혀온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난 것은 최근 일본이 1930, 40년대에 자행한 침략의 근성을 의도적으로 가볍게 만들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수정하려는데서 침략의 만행에 희생된 아시아제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데서 비롯됐다.

일본이 역사를 수정키로 결정한 이유를 분석한 이 신문은 그같은 작업이 30년간 은밀히 진행돼 왔으며, 최근 역사교과서 수정에 가장 크게 드러난 경우로 이에 대한 일본의 미미한 이유설명이 인접국가들을 격분시켰다고 말했다.

일본정부의 교과서 수정 동기로 1)일본의 국위및 애국심 앙양, 2)자위대의 위신회복으로 지적한 이 신문은 한국과 중국이 교과서 수정에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일본의 전후세대가 "일본은 침략국이 아니라, 전쟁희생국"인 것으로 알도록 유도하려는 의도에 분노를 느끼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처음 한국과 중국에서 시작된 반발은 북한과 싱가포르에까지 번졌다.

교과서 왜곡항의서한
대만교수·학생 일에 전달

(타이페이-대만)자유중국의 3개 대학 교수와 학생대표 5명은 지난 11일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항의하는 편지를 대만 일본비공식 접촉기관인 인터체인지·어소시에이션에 전달했다.

◆정작 찌는듯이 무더운 날씨는 며칠되는 것같지도 않더니 선선한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여성들은 한번쯤은 패션—무엇을 입을 것인가—에 생각하게 되고 혹은 기대로 혹은 짜증으로 망설인다. 토론토·선지의 패션담당인 바바라·스그로이 여사가 권하는 「실용적인 가을 문턱의 옷차림」중의 하나. 린넨·스커트($95), 잠바($80). 심슨·익스프레션·셥에서 구입가능.

불교승에 결혼허용
조계종, 현실적응위해

(서울13일=연합)한국 불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조계종단은 승려들의 결혼과 육식을 허용할 계획이다.

18개 한국불교종파중 가장 큰 조계종은 승려를 2개 구룹으로 구분, 1) 주로 수도에만 전념하는 부류와 2) 불교전도에 힘쓰는 부류로 나누어 전도파에서 결혼과 절밖에서의 육식을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 계획은 오는 11월 조계종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계종의 새 개정안은 오늘날 한국불교가 처한 중대문제중의 하나인 현실적응을 위한 방안이다.

지금까지 불교는 지나치게 종교의식에만 치중, 현실세계에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아왔었다.

한 예로 불교가 고집해온 승려의 채식주의는 공해에 시달리는 산업사회에서 승려들에게 전도에 필요한 건강을제공치 못해왔다고 개정안 지지자들은 주장했다.

또한 승려의 복장면에서도 조계종은 불공등 의식을 제외하고는 아무 복장이나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의 예금금리 (6월23일부터)			
기 간	일반정기예금	오뚜기정기예금	일반은행
30일	13.5%		13%
90일	14%		13.75%
180일	14.25%	14.25%	13.75%
365일	14.5%	14.5%	13.75%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533-9387~8

◁금주의 행사▷
— 8월16일~22일 —

◆19~22일 하오7시30분 베델교회 부흥사경회
곳: 베델교회(395 Old Youge St. Tor)
강사: 최상식목사
연락처: 전화 221-1382, 496-2967

◆20~22일 아침10시, 저녁7시30분 박윤선목사 사경회
곳: 중앙장로교회(502 Bathurst)
연락처: 270-3092, 431-7391

◆21일(토) 상오8시~하오7시 한맘노인회 여름소풍
행선지: Brighton Beach
회 비: $10(점심 각자지참, 음료수제공)
연락처: 863-0415(천주교노인회)

◆21일(토) 상오11시 서울대학교 동창야유회
곳: Rowntree Mills Park
연락처: 499-2348(신동운)

◆21일(토) 상오11시 부산대학동창 야유회
곳: Rowntree Mills Park
연락처: 530-0522

◆21일(토) 상오11시 경기고교동창 야유회
곳: Rowntree Mills Park(Islington×Finch)

◆21일(토) 정오 볼링협회 주최 창립기념 볼링대회
곳: Pro 10Pin Bowl(877 Wilson Ave.)
연락처: 742-2193(정)·759-8228(장)

◆21일(토) 낮12시, 밤7시 CNE 국제태권도 챔피언 쉽
곳: South Industry Building(CNE)
연락처: 박종수태권도장 (961-7100)

◆21일(토) 상오9시 한인테니스대회(코리언저널 주최)
곳: Eglinton Flat Park 테니스코트
(제인×에글린턴 동남코너)
연락처: 757-8000, 267-0745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김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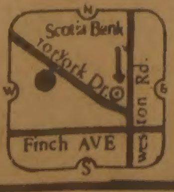
은하 보석
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left) 관광 순 화 상 품 — 금화상품
(right) 귀국선물
☎: 534-9977.7791 620A Bloor St.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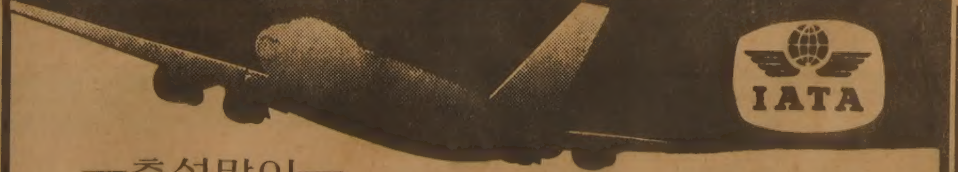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 사고차량 완전수리
● 페인팅(OVEN BAKED FINISH)
● 수리중 차량대여
●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 대 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추석맞이—
럭키국립공원 단체관광 (2차 모집)
■ 일 시 : 1982년 9월14일~9월21일(7박8일)
■ 방문일정 ; 제스파 공원 2박 • 벤프공원 2박
캠룹스 1박 • 벤쿠버/빅토리아시 2박
■ 요 금 : $650
■ 포함된사항 : ● 왕복항공료 ● 숙박비(4인1조) ● 관광버스 ● 안내자
■ 신청마감 : 1982년 8월25일까지 ● 예약금 $100첨부
■ 기 타 : ♤취소할 경우 예약금은 반환치 않음.
♤요금은 예고없이 변동될 경우도 있음.
♤한국인 안내자가 출발서부터 귀환까지 책임안내함.

신세계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NEW WORLD TRAVEL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 • 2156
R) 492-7525 김 창 범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여변호사 살해범 체포

2년전 반나의 시체로, 범인은 18세소년

메트로 경찰은 2년전 비치지역 아파트앞에서 살해된 여성 변호사 바바라·슈리퍼의 살해용의자로 18세의 소년을 체포했다.

사건당시 15세였던 범인은 1급살인혐의를 받고있으나 이 소년의 신원을 범행당시 나이때문에 미성년범죄로 간주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다.

12일 온타리오주지방 미성년법원에 출두한 범인은 오는 9월9일 청문회가 시작될때까지 돈제일교도소에 감금된다.

담당검사는 범인의 현재 나이가 18세가 넘으므로 일반법원으로 이송하는 청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범인을 체포한 울드햄형사는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중 이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말했다.

피살 당시 33세였던 슈리퍼변호사는 법정출두후 귀가한지 24시간후 수군데 자상을 입고 반나의 시체로 발견됐었다.

메트로 경찰 살인전담 윌슨반장은 사건수사는 정보에 의한 것은 아니었고 4주전 용의점을 찾아내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고 말했다.

슈리퍼 변호사의 시체가 발견됐을 당시현장에는 아무런 단서도 없었고 비에 젖은 음란잡지만 놓여있었다.

금년들어 발생한 강력살인사건들을 해결못해 압력을 받아온 메트로 경찰은 이 사건해결로 약간 한숨을 돌렸다.

뉴욕 교포밀집지역 흑인여강도 빈발

(뉴욕지사)뉴욕의 교포가정이 밀집해 있는 후러싱루즈벨트 애비뉴 일대의 아파트군에 강도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많은 교포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지난30일 회사원 윤지영양(23)은 하오6시께 집에 도착, 메일함을 체크하고 계단을 올라가던중 2층에 대기하고 있던 흑인여자 10대강도에 의해 식칼로 위협당한채, 현금1백달러, 금반지, 금목걸이등 싯가 3백달러어치를 강탈당했다.

여자 10대강도는 윤양의 금품외에도 윤양과 함께 살고 있는 형부 이모씨(38·회사원) 아파트안에 까지 윤양을 끌고 들어가 목욕탕에 감금해 놓고, 실내가구및 침대싯트 속까지 샅샅이 뒤져 값나가는 보석류, 핸드백등 약2천달러 어치를 털어 달아났다는 것.

피해를 당한 윤양에 따르면 범인의 인상착의는 16세 전후로 보이는 흑인여자였으며, 보통키에 청바지를 줄세워 입은 단정한 모습이었으나, 칼로 위협하는 수법이 몹시 불안해 하고 서툴어 보였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수일전에는 역시 후러싱 41애비뉴에 있는 구화식품 캐셔 한혜경양이 퇴근길에 여자흑인 10대강도 2명으로부터 칼과 권총으로 위협당하고, 현금 4달러와 금목걸이를 빼앗기고, 그녀의 아파트 5층에까지 추적당했으나 마침 집에 언니가 있어 더 큰 피해를 모면했다.

한양은 그러나 보복이 두렵고, 신고방법을 몰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새 이민법개정안

미상원, 16일 표결

상원법사위의 오노·리브우드행정관은 11일 "이민법 개정안이 본의회에 발의, 빠르면 16일에 표결이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상원 본회의에서 이민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하원합동회의를 거쳐 레건대통령에게 송부된다.

〈뉴욕타임즈〉는 11일자에서 새 이민법 개정안의 회 통과를 다시 촉구하였다.

이 신문은 지난 9일자 사설에서도 이민행정을 쇄신을 위해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번 이민법개정안 발의자인 상원이민및 난민정책소위원회 알란·심슨위원장은 10일자 〈뉴욕타임즈〉에 기고문을 통해 현행 이민법으로 이민행정이 유효적절하게 운용될 수 없어 개정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슨위원장은 불법이민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고용주의 불법이민 고용방지 규정이 새 이민법 개정안에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주 처벌조항은 삭제하라는 미상공회의소의 로비활동은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토로 돌아온 월드컵—이번 주말부터 이튼센터에서 전시될 「월드컵」을 이태리계 캐나다인 알셈다·브라자오양이 닦고 있다. 이태리가 스페인 「'82 월드컵」을 따낸 이 컵은 안보관계로 우승국에서 보관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태리계 캐나다인들의 극성으로 세계축구협회(FIFA)가 국외반출을 특별 허락했다.

이 컵은 오는8월18일부터 캐나다 국립박람회(CNE) 기간동안 CNE의 「스포츠 명예의 전당」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사진촬영대회 약사

제1회(76년)~제6회(81년)

사진협회·본사 공동주최 연례행사로 6년전부터 실시해온 아마추어 사진촬영대회를 간추려 본다.

때로는 자연미를, 때로는 미녀를 곁들여 자연과 사람의 앙상블로, 멀리 2박3일 예정으로 원정가서 대회를 치르기도 했다.

◆제1회(76년 10월3일)

▲알비온·힐·파크에서 모델미녀에 단풍경치를 배경으로 실시.

▲모델—김영옥(75년 미스코리아 미), 박옥진(76년 미스코리아 미) 그밖에 2명의 백인 모델미녀

▲입상—
1등 〈추심〉(박정환)
2등 〈숲의 대화〉(최학기)
3등 〈가을을 한아름〉(임정재)
3등 〈여정〉(안기환)

◆제2회(77년 10월15일)

▲보이드·콘저베이션·파크에서 단풍과 물 배경 마녀모델을 촬영.

▲모델—장헬렌·김밀바·2명의 백인미녀

▲입상—
특선 〈가을의 마음〉(임정재)
1등 〈계절의 정〉(황재필)
2등 〈낙엽과 여인〉(최학철)
3등 〈낙엽〉(김용대)

◆제3회(78년 8월 12일)

▲페티코크·크릭·파크에서 3명의 백인미녀(직업모델)를 등장시켜, 「여름과 호수와 미녀」를 렌즈에 담았다.

제1·2회때는 흑백및 칼라부문 촬영만 실시했으나, 제3회부터 슬라이드부를 신설했다.

▲입상—
특선 〈석양의 여인〉(임정재)
1등 〈포즈〉(송종관)
2등 〈하머니 인 섬머〉(장용수)
3등 〈하오의 연정〉(송관현)
슬라이드 가작: 김명선·이성준·임성찬

※특기할 것은 1~3회에 계속 상위 입상한 임정재씨의 끈기이다. 첫회에 3등, 2회와 3회에 거듭 최고상(특선)을 차지한 실력파. 그는 후진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다음회 부터는 출품하지 않았다.

◆제4회(79년 7월21일)

▲전해와 같은 페티코트·크릭·파크에서 3명의 백인미녀 모델로 약40명이 샤터를 눌러대, 151점이 출품됐다.

이축길·전경수·권순창 3씨가 심사한 결과 아래 작품들을 뽑았다.

▲입상—
특선 〈하얀마음〉(황보운)
준특선 〈녹원의 요정〉(김명선)
1등 〈숲속의 나〉(손영곤)
2등 〈미소〉(강춘문)
3등 〈피안의 세계〉(조흥제)
슬라이드:
1등 〈생각〉(이성준)
2등 〈숲속의 여인〉(천영순)
3등 〈미스·제인〉(리차드·김)

◆제5회(80년 5월31일~6월1일)

▲획기적으로 무대를 멀리, 대회일수를 2일간으로 확장했다.

세계적 관광명소 나이아가라에서 실시했으며, 촬영을 마친뒤 일동이 함께 바베큐를 즐긴것도 이번대회의 특색.

가족까지 1백여명이 동행했으나, 촬영대회에는 40여명이 겨루어 총 60점(칼라 48점, 흑백 3점, 슬라이드 9점)이 접수됐다.

이축길·전경수·이인덕 3씨가 심사했다.

▲입상—
특선 〈동불〉(임윤재)
1등 〈여름밤의 낭만〉(박세도)
2등 〈여름밤의 환상〉(황재필)
3등 〈나이아가라의 아침〉(김형찬)
가작 : 이상휘·김형찬·강춘문·이보영·이범황.

◆제6회(81년 6월6~7일)

▲나이아가라 일대에서 약80명 참석, 작년과 같은 1박2일 행사로 진행되었다. 출품수는 20여명의 70여점. (심사위원장 이인덕)

▲입상—
특선 〈적막〉(박응렬)
1등 〈나이아가라 야경〉(원용섭)
2등 〈나이아라가 타운〉(김형찬)
3등 〈광〉(임윤재)
가작 〈격랑〉(정효생)
가작 〈환희〉(이상휘)
가작 〈매표소〉(이강헌)
장려상 〈자연의 힘〉(이희진)

◆제7회(82년 10월2일)

▲보이드·콘저베이션·파크.

한국어과 신설 메릴랜드대학

(워싱턴지사)메릴랜드대학은 9월학기부터 한국어 코스를 설정하고, 수강신청을 받게 된다.

메릴랜드대학에는 약 4~5백명의 한국학생이 재학중인데, 동대학 히브리어및 동아시아어문학과는 한국어 코스를 우선 시험적으로 실시해 보고, 수강생 등록율이 좋으면 그대로 계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대학의 ADELE AUSTIN RICKETT씨는 교포중에서 영어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를 찾고 있다.

◆ 정 정 ◆

지난 12일자 "한인회관 모금···"기사중 기금 납부자 금액 명단중 「$1,200=김영규·서춘봉」은 「$1,000=김영규·서춘봉」으로 바로 잡습니다.

〈본사발령〉

광고국 중원 차수환씨

◆차수환씨

한국일보사에 새 식구가 늘었다.

광고국 세일즈담당 차수환(30)씨는 지난4월부터 본사 발송부에서 업무를 맡아오다가, 광고국업무확장으로 8월9일부 전보 발령됐다.

차씨는 휘문고등학교와 단국대 경영학과를 졸업, 80년에 이민왔다.

이로써 광고국은 송광호국장 이하 5명으로 확충됐다.

〈소 론〉

바캉스를 즐기자

박 회 민논설위원(목사·토론토한인장로회)

◆박희민 논설위원

이민자의 생활은 바쁘고 고달프다. 하루 속히 잘살고 안정된 생활을 이루며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쉴새없이 뛴다.

많은 교포들이 일년 365일 동안 거의 휴가 없이 하루에도 아침 일곱시부터 밤 12시까지 스토어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오버타임을 한다. 그 댓가로 이민의 역사가 짧지만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규모가 작지만 한국 이민자들의 사업이 번창해 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캉스를 즐기자고 말한다면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 어떤 놈팽이의 잠꼬대나, 부유한 사람들의 사치품처럼 들릴는지 모르겠다. 최근 경기불황은 더욱 휴가를 생각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바캉스는 할일이 없고 돈 많은 사람들만이 즐기는 전매특허품이 아니다.

사실은 일에 쫓기고 삶에 지친 이들에게 바캉스의 의미는 더 큰 것이다. 바캉스를 즐기고 휴가를 엔조이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할일 없이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나 실업자들이 아닌 것이다. 그들에겐 바캉스가 오히려 피로운 형벌이 되는 것이다.

바쁜 일과를 잠시 멈추고 쉴 때 쉼과, 안식의 맛을 [illegible]게 되는 것이다. 휴가는 반드[illegible] 많아야 즐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적은 경비를 들이고도 [illegible]생을 즐기고, 삶을 축제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 바캉스를 즐길 수 있는 비결은 그 사람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적 자세에 있는 것이다. 호텔에서 쉬는 사람들만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텐트를 치고 자연을 즐기는 사람들에게서 더 큰 인생의 멋과 행복을 찾아볼 수도 있는 것이다.

◆

인간은 계속 일만 하면서 살 수 없게 창조되었다. 스물네시간 일만 계속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 창조주께서 낮과 밤을 주신 것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도록 함이다. 물론 요새는 밤에 일하고 낮에 쉬는 이들도 있지만 좌우간 얼마동안 일하고, 또 얼마간 쉬어야 하는 것이 삶의 원리이다. 이 삶의 원리를 무시하고 살아갈 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장이 생기고, 이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아무리 힘들고 고달픈 일을 했을 때라도 한잠 자고 나면 모든 피로가 깨끗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인간은 휴식을 통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으며, 새 마음으로 다시 자신의 직무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휴식은 이처럼 귀한 것이다. 휴가는 단순히 일을 하지 않고 노는 것이 아니다. 그 이상의 뜻을 담고 있다. 새날을 창조하기 위한 준비운동인 것이다.

성서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이 있다. 일주일에 하루씩 안식을 지키는 것은 일을 [illegible]지 않고 노는데 [illegible] 목적이 [illegible] 아니[illegible]의 것을 중단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자신의 일만을 위해 살던 인간이 하루만이라도 자신을 지으신 그분의 높으신 뜻을 생각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다.

육신적인 삶만을 위해 살지 않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도록 하려는데 안식일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인간이 땅만을 바라보매 삶 때 메마르고 천박해지며 저속해진다. 그러므로 가끔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필요한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삶의 높은 이상과 비젼을 얻게 되는 것이다.

바캉스는 단순히 일을 하지 않고 노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돌보고 반성하며, 자신의 현주소를 점검함으로 새로운 내일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있는 삶에 대한 추구가 없다면 바캉스는 무의미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바캉스의 철학자가 되어 너무 심각하게 삶의 의미를 추구하란 말은 아니다.

구김 없는 쉼과 자연스런 놀이(recreation)를 통해 삶의 재창조(recreation)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금년의 바캉스 계절도 그 절정에 다다르고 있다. 남은 계절이 보다 뜻있는 삶과 보다 명랑한 교포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우리의 피로해진 심신을 마음껏 푸는 기간이 되었으면 한다.

신학생 모집

장로회신학대학

미주장로회신학대학 토론토분교(분교장 최양선)는 신입생및 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교역학과, 신학과, 교회음악과, 성악과등의 지원자중 시험을 거쳐 받아들이며, 교역학은 3년제 석사과정이며, 신학과와 교회음악과는 4년제 학사과정, 성서과는 2년제로 공부를 마치면 수료증을 수여한다.

원서마감 9월6일(월), 시험은 같은날 하오6시 오순절장로교회내 동대학 강의실(754 Indian Rd, Tor)에서 실시한다.

시험과목은 성경, 국어, 역사, 일반상식이며, 당일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 개교일시는 9월7일(화) 하오6시이다.

문의처 : 762—1495, 764—2870

〈독자의 광장〉

수영장에서

김 성 헌(토론토·웨스턴)

한낮의 후덥지근한 더위에 쫓겨 아이들과 같이 근처 공원에 있는 수영장엘 갔다. 마침 가족시간이라서 인지, 별로 사람이 많지 않아 좋았다.

물에 뛰어들어 두어번 수영장을 가로 질러 헤엄을 쳐 갔다왔다 하고는 숨이 차서 밖으로 나와 타올을 펴고 벌렁 누웠다.

가만히 눈을 감는다. 따가운 햇살이 피부 위에서 자글자글 타고, 풀밭을 스쳐 불어오는 바람이 간지럽다.

눈을 반쯤 실며시 뜨고 파아란 하늘을 본다. 낯익은 하늘이 항상 변함없이 아기를 포근히 감싸주는 엄마의 품과도 같이 느껴진다.

그게 언제였던가!

어릴 때 피난시절, 논물을 대기 위한 웅덩이의 황토빛 물에서 동생들과 첨범거리고 물싸움하던 일이 생각난다.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량진행 전차를 타고 한강에 나가 수영도 하고, 보오트도 타던 일.

그후 대천이며 만리포, 해운대, 경포대해수욕장들을 찾던 여름들이 영상처럼 이어져 간다.

그 끝없이 푸른 하늘, 끊임없이 일렁거리던 탁 터진 푸른 바다! 작렬하는 태양에 눈부시던 모래사장, 바다 특유의 내음을 듬뿍 안은 싱그러운 바람, 그 대기 속에 넘치는 원기있는 움직임들과 폭발되는 듯한 생기에 찬 소음들….

"아—", 심호흡을 하며 눈을 번쩍 뜬다. 푸른 하늘위에 전개되던 아련한 영상들이 일시에 지워져 버렸다. 텅빈 하늘은 무심하기만 하다. 얼굴이 따갑다. 몸을 뒤쳐 등으로 햇빛을 받는다.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머리를 돌린다.

풀에서는 아이들이 한창 첨벙거린다. 그리고 큰아이는 막내에게 열심히 수영을 가르치고 있다. 막내는 얼굴을 처켜들고 눈을 꼭 감은채 빠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팔다리를 첨벙대지만 자꾸만 가라앉는다. 그러면 아이는 더 머리를 뒤로 처들고 그럴수록 허덕임은 더해가고, 몸은 자꾸 가라앉는다. 보다못한 큰아이가 막내를 불러 세운다.

"미영, 얼굴을 물속에 잠거. 그래야 몸이 뜨는거야. 자, 나를 봐."

큰아이가 막내를 세워두고, 시범을 보인다. 팔다리를 쭉 펴고 얼굴을 물속에 잠그고, 가만히 있으나 몸이 수면에 저절로 떠오른다. 다음엔 천천히 팔다리를 움직이며 앞으로 나아간다.

얼굴의 물을 닦으며 일어서더니

"봤지! 이제 언니처럼 해봐… 얼굴을 물속에 넣어."

나는 다시 눈을 감는다. 큰애의 목소리가 계속 들린다.

"얼굴 들지 마! 옳지 됐어. 다시 해봐…"

얼굴을 물속에 넣으라는 큰아이의 말이 귓바퀴에 울림처럼 퍼지더니 마음의 공동에까지 파문져 오는 것같다.

흔히들 세상을 고해니 폭풍의 바다니 하면서 바다에 비유한다.

그럼 우리는 그 속을 유영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너, 나할것 없이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저쪽 언덕에 이르기까지는 계속 헤엄쳐 나가야 한다. 나는 갑자기 자신의 모습이 궁금해진다. 나는 정말 멋있게 헤엄을 칠 수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기본적인 것도 익히지 못한채 허덕이기만 하는 것인가?

어느땐가는 그 잘난 이름석자를 남앞에 내어보이겠다는 비천한 명예욕 때문에 잘난체 얼굴을 쳐들다 물을 먹기도 했고, 또 몇푼의 돈을 더 잡아보려는 부당한 물욕 때문에, 또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허덕이다 가라앉으며 물을 먹기도 한 부끄러운 자신임을 숨길 수 없다.

세상엔 얼마나 많은 익사체가 부랑하는지 모른다. 우리는 꼭 헤엄치기를 배워야 한다. 그 기본동작부터 하나 하나 익혀가야 한다. 머리를 물에 처박고 몸을 뜨게 하는 것부터… 위로 뜨기 위해 밑으로 잠겨야 한다는 역설이 극히 초보적이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면서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인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조그만 삶의 편린일지라도 정성과 열의를 다하는 것이 삶의 첫번째 동작이 되어져야할 것같다. Life guard의 호르라기 소리에 몸을 일으킨다.

벌써 시간이 되었나?

"아빠, 얼굴을 물에다 넣고 가만히 있으니까 몸이 막 떠요. 다음엔 언니가 숨쉬는 것, 발장구 치는 것 가르쳐 준댔어…."

수영장을 나오며 재잘거리는 막내의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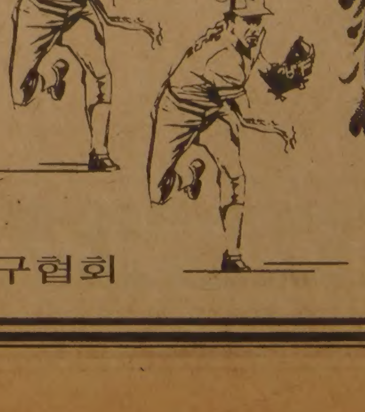
푸른 하늘을 쳐다본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많은 역설적인 말씀들을 음미해 본다.

"너희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2회 브랜든스포츠사배쟁탈

추계야구대회

종 목 : 대표팀, O.B팀(1951년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일 시 : 1982년9월4일, 5일(토·일)오전8시30분
장 소 : 센테니얼파크야구장
참가비 : 팀당 $70
주장회의 : 8월28일(토)오후7시브랜든스포츠사내
연락처 : 박재선 755—6434
브랜든운동구점 598—3732
주 최 : 브랜든스포츠사
후 원 : 토론토한인회, 대한체육회캐나다지부, 한인야구협회



◆12일 별세한 헨리·폰다의 일생—왼쪽으로 부터 영화 "미스터 로버츠"에서의 표정, TV극 클레어런스·대로우에서의 열연, 다섯번째 결혼한 가장 오래 같이 살은 부인 셜리와 함께, 딸 제인·폰다의 키스를 받으며.

헨리·폰다 77세로 별세

병상에서도 "마음은 젊다"던 적극파

오스카수상작 "황금연못"이 최후작품

배우 헨리·폰다가 1[illegible]하오 헐리웃에서 77세를 [illegible]기로 별세했다.

90여편의 영화에서 "미국적 인간상"을 묘사했던 헨리·폰다는 영화 「황금연못」에서 캐서린·햅번과 출연한 마지막 작품으로 9개월전 오스카상을 받았었다.

「명우 헨리·폰다」로 뿐 아니라 지적인 여배우 제인·폰다와 배우 피터·폰다의 아버지로서도 미국영화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에 충분한 헨리·폰다의 명연기는 특히 40년도 작품 "분노의 포도"에서 톰·조드역으로, 58년 "12명의 성난 사나이들" 로 오스카상 후보에 올랐었다.

그의 대표 출연작으로는 "젊은 링컨", "미스터·로버츠", "우리마을", "프론트·페이지"등이 있다.

오랜동안 병상에서 생활하며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 젊은시절의 영화계 추억담을 들려주곤 하던 헨리·폰다는 그의 눈을 맨하탄안구 은행에 기증했다. 그는 이날 침대에 앉아 있던중 조용하게 숨을 거두었다.

한편 헨리·폰다의 죽음이 전해지자 제임스·스튜어트, 찰톤·헤스톤, 봅·호프, 루실·볼, 로널드·레이건 미대통령등 왕년에 공연한 노역장 배우들이 애도를 표했다.

유족으로 부인 셜리와 아들 피터, 딸 제인등이 있다.

불루어스트리트의 하루 5

이 태 준 (문협회원)

저의 경험으로는 젊은이들의 이혼은 상처도 그렇게 깊지 않고, 재기하는 속도도 빠르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의 이혼은 심각할 정도로 후유증이 심합니다. 최선생님 말씀에 소외되고 무시당해서 사시는 재미가 하나도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혼하셔서 혼자 사시면 더욱 그러한 생각에 시달리게 되실 것입니다. 부인께서도 마찬가지로 남편때문에 속은 덜 썩히실지 모르지만 외로움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신기중변호사는 여기서 말을 끊고, 최기철내외의 눈치를 살폈다. 두 내외의 얼굴은 폭풍이 지난후의 호수처럼 잔잔한 사색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두 내외의 심경에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신기중변호사는 충분히 화해시킬 수 있다고 다짐하며 서랍을 조용히 열고 서류를 꺼냈다.

"이것은 제가 법원에 제출해야 할 이혼합의서입니다. 아직도 이혼을 하시겠다는 마음에 변화가 없으시다면 두분이 서명을 하시도록 하십시요."

마음의 변화는 미묘한 것이어서 결정적 순간의 놓치면 번복되기 쉬운점을 감안해서 다그치는 신기중변호사의 책략이 숨어있는 제스처였다.

최기철 내외는 입을 무겁게 다문자세로 생각에 잠겨있었다.

"나이는 저보다 몇십년이 위이실지 모르지만 캐나다생활은 저의 반도 못되셨을 것입니다. 선생님내외분뿐만 아니라, 대개의 이민교포들이 거의 공식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 그것은 임산부가 겪는 입덧과도 흡사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캐나다라는 외국에서 이질적인 문화·습관·가치관등을 잉태하고, 심한 입덧을 앓고 있는 임산부들입니다. 귀하고 소중한 아기가 태반에 완전히 자리를 잡고 성장하기 시작하면, 임산부의 입덧이 자연히 가시듯이 세월이 흘러 이나라의 생활에 익숙해지고, 문화와 습관이 몸에 배면 최선생님 내외분께서 겪는 어려움은 오히려 어려움을 극복한 긍지로 남을것입니다."

신기중변호사의 설득력은 완전히 최기철내외를 사로잡아 버렸다.

"한국에서 살때는 전혀 이런 일이 없었어요."

흥분이 완전히 가라앉은 부인의 목소리는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다.

"모든것이 제 탓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말하는 최기철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됐읍니다. 그러면 오늘 일은 없었던것으로 생각하시고, 우선 최선생님께서는 외적인 일에 너무 치중하지 마십시요."

"감투에는 하나도 미련이 없읍니다. 부끄러워서 더 이상 얼굴을 내밀수도 없구요."

"저두 남자가 지나치게 집안에 처박혀서 꼼꼼한 것은 싫어요. 적당히만 하시면 누가 뭐라겠읍니까?"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신기중변호사는,

"두분이 화해를 하셔서 저도 기분이 무척좋습니다. 사정이 허락하시면 저 저녁이나 한끼 사주십시요. 대신 상담료는받지 않겠읍니다."

서글서글 웃으며 시원스럽게 말하는 신기중변호사는 최기철내외에게 희망과 믿음을 심어주었다.

"저녁사드리는 것이 문제겠읍니까마는 복장이 이래서···"

최기철이 찢기고 구겨진 양복을 내려다보면서 난색을 보였다.

"그럼 싸구려 저녁을 사주려고 하셨읍니까? 물론 집에 가셔서 양복을 갈아입으시고, 사모님도 단장을 하신 후에 일류식당에 가셔서 사주셔야죠."

"그럼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실래요?"

부인이 소원이라는듯이 말했다.

"네, 기다리겠읍니다. 기다리면서 괜찮으시다면 식당예약은 제가 하겠읍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서둘러 말하며 일어서는 부인을 따라 나가며,

"감투왕이 여편네에게 따귀 맞고, 정신차렸다는 소리를 듣겠는데····"

최기철이 투덜거렸다.

김노인이 살고 있는 노인아파트에는 김노인의 딸이 찾아와 근심스러운 얼굴로 관리인의 방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사십대 정도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는 생활의 고달픔이 땀처럼 배어 있었다. (계 속)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黃色의 사나이 <48>

金聖鍾 작

殺意의 斷層 ⑮

가게서 문자는 시퍼런 칼을 고르더니…

朴 男 그림

오빠에 대한 실망이 어느새 강한 신뢰로 바뀌어져 있었다. 그것은 남편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한 신뢰였다. 자연 오빠와 남편이 비교가 되었다. 두 사람을 비교해 보기는 처음이었다. 누가 잘 나고 못 나고를 떠나 그녀에게 있어서 그들 두 사람은 본질적으로 서로 달랐다. 오빠에게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지만 남편에게는 그것이 안된다. 오빠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지만 남편은 그럴지가 못하다. 오빠는 영원히 오빠지만 남편은 함께 살 때에만 남편이다. 오빠와는 피로 맺어진 사이이지만 남편과는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관계일뿐이다. 따라서 부부 사이란 일단 깨어지면 서로 남남일 뿐이다.

그녀는 참담한 심정으로 눈 쌓인 길을 한참동안 걸어가다가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볼 일이 있어 시내에 나왔으니 집으로 차를 보낼 필요는 없고 6시 반까지 R빌딩 지하에 있는 다방으로 나가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시계를 보았다. 4시5분전 이었다. 시내로 들어간 그녀는 발길 닿는대로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화신 앞을 지나 지하도로 들어가 쇼윈도를 멍청히 바라보면서 터벅터벅 걸었다. 지하도를 나와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고는 광교쪽으로 향했다. 12월의 인파가 거리에 넘쳐 흐르고 있었다. 길을 건넜다. 머플러가 흘러 벗어졌다. 집어서 한번 흔든 다음 호주머니 속에 쑤셔넣었다.

오후에 멎었던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다시 지하도로 내려갔다. 어느 쇼윈도 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파이프, 라이터, 담배갑, 지갑, 나이프, 만년필 등 남자들이 좋아 찾는 일상용품을 파는 곳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나이프에 고정되어 있었다. 멋지게 생긴 나이프가 서너개 놓여 있었다. 하나 필요할지도 모른다.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머뭇거리다가 쇼윈도를 지나쳐 갔다. 계단을 올라서다 말고 돌아서서 내려왔다. 선글라스를 꺼내 낀 다음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

그 가게에는 번드르르하게 생긴 청년 하나가 지키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다리를 꼬고 앉아 껌을 짝짝 씹고 있던 청년이 아래 위로 그녀를 훑어보며 일어섰다. 허우대가 크고 미남이다. 그녀는 역겨움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모세한테 당하고부터는 허우대가 크고 잘 생긴 남자에 대해서는 역겨움을 느끼곤했다. 그녀는 이것저것 훑어보는 척하고 있는데 청년이 가까이 다가와 물었다.

「남자분한테 선물하실건가요?」

향수냄새가 확 풍겨왔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선물하기에는 이런게 좋지요.」

파이프를 들어보인다.

「이런 것도 괜찮지요.」

담배갑을 집어든다. 그녀가 외면하자 이번에는 라이터를 가리켰다. 거부반응을 보이자

「어떤 걸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나이프를 집어들었다. 단추를 누르자 시퍼런 날이 튀어나왔다. 한번 찔러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는 칼이었다. 손잡이 부분은 나무로 되어있었다. 손잡이 중간부분에는 쇠로 된 원형의 상표가 붙어있었는데 호랑이 머리와 함께 「TIGER」라고 쓰여있었다. 그 밑에는 또 아주 작은 글씨로 「MADE IN U.S.A.」라고 적혀있었다.

「칼을 선물하실려구요? 아주 특별한걸 고르셨습니다. 역시 특이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 : 243-9544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 1391 WESTON RD.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三國志 438

글·高羽榮·그림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서울대학교 동창회

'82 야 유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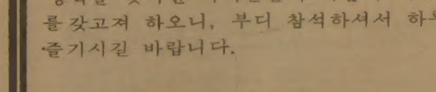
본 서울대학교 동창회 캐나다지부의 1982년도 야유회 모임을 아래와 같이 갖고저 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개별 연락 드리지 못하오나 꼭 나오셔서 짧은 여름의 긴 한나절을 함께 즐기십시요.

* 아 래 *

○서울대학교 동창회 '82 야유회
○일 시 : 1982. 8 .21(토) 오전11시
(우천시 1주 순연)
○장 소 : Rown Tree Mill Park
(Islington & Finch, Rexdale)
(작년도와 동일장소임)
○연락처 : 신동운 회장 ☎ 499-2348
주병돈 부회장 ☎ 671-1909,
임윤식 총무 ☎ 638-6919

서울대학교동창회 캐나다지부
운영위원장 신 동 운

부산대학 동창 야유회



성하의 계절에 동창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을 맞이한 자녀분들과 더불어 야유회를 갖고저 하오니, 부디 참석하셔서 하루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 8월21일(토) 오전11시
장 소 : ROWN TREE PARK
(이스링턴 & 휜치)
* 식사및 음료는 동창회에서 준비함.
연락처 : 530-0522, 267-9236, 276-5940

* 많은 선물이 준비되었으니 회원각자 가족과 특히 어린이들은 빠짐없이 참석하기 바랍니다.
* 우천시에는 다음주 토요일(8월28일)로 연기함.

재캐나다 부산대학 동창회

경희대학교동문
낚시대회

동문 여러분, 물맑고 경치좋은 곳에서 대어를 낚으며 하루를 즐겨 봅시다.

◇시일 : 1982년 8월21일 오전11시
◇장소 : Bellwood Conservation Park
◇준비물 : 도시락, 낚시도구 지참
* 참고—B. B. Q. 는 동문회에서 준비함.
각종 TROPHY와 상품증정

가족동반 하시어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연락처 : ☎ 421-7438,
☎ 924-5155
☎ 669-5084

· · · 장소설명 · · ·
401 W로 가다가 인터첸지 36A로 빠져 Hwy 6 North를 따라 Guelph를 지나 북으로 가면 FERGUS라는 마을이 있음. 이곳에서 동북 쪽으로 3마일지점.

동문회장 차 원 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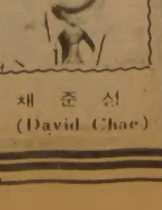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밴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전 화 : 〈B〉 (416)497-8900 채 준 식
〈R〉 (416)633-7892 (David Chae)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올림픽에 6,066億 투입

체조등 5競技場신설
民資유치…大會후 일반分讓
88五輪·86亞洲競技 기본계획 확정

88년 서울 올림픽과 86년 아시안게임 마스터플랜이 확정됐다.

體育部는 11일 51개有關기관에서 제출한 각종 사업계획안을 토대로하여 앞으로 6년간에 펼쳐질 아시안게임과 올림픽행사의 지침을 발표했다. 李源京 체육부장관이 11일발표한 總合計劃에따르면 행사시설 환경조성등 5개분야에 걸쳐 총5백66개의 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예산규모를 6천66억1천7백만원으로 잡았다. 이가운데 올림픽관계예산은 5천3백68억1천1백만원, 아시안게임 예산이 6백98억6백만원.

◇李체육부장관

서울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SLOOC)는 「最少의 經費로 最大效果를 올린다」는 방침아래 예산규모를 축소조정했으며 원칙적으로 소요財源을 SLOOC의 각종 收益金으로 충당하고 신규시설은 民資로 건립, 대회후에 일반에 분양하거나 민영체제 시설로 활용할 방침이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 대비, 신설될 시설물은 총13개이며 주경기장가운데 신설되는것은 체조 사이클(벨로드롬) 조정 승마 요트등 5개경기장뿐이며 탁구 펜싱 수영 하키 테니스경기장은 국립경기장 구역내로 이전되는 한국체육대및 서울체육고와 올림픽선수촌·한강조정장등의 부속시설로 마련된다.

대부분의 경기는 서울圈에서 치러지나 축구예선만은 서울 大田 大邱 光州등 4개지역서 분산 개최하고 요트경기는 釜山서 거행된다.

SLOOC는 TV방송 중계권, 기념주화, 올림픽복표, 표장(標章)사용권, 입장기념품, 기념우표, 광고, 유료책자 판매등의 수익을 벌이며 올림픽에 35만명이상, 아시안게임에 15만명이상의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올림픽개최기간은 88년9월20일부터 10월5일까지 16일간이나 TV중계문제, 일기등을 고려하여 추후 대회기간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戰爭책임"聲明발표 歪曲시정은 自律로
日政府
鈴木수상, 「교과서異見」조정 示唆

【東京11日=宋孝彬특파원】일본정부와 自民黨은 계속심각한 외교문제로 번지고있는 역사교과서 검정문제의 해결을위해 한국과 중공정부에대해①일본의 전쟁책임을 표명하는 정부의 공식성명을 발표하고②역사記述의 구체적 시정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日정부에 자율적 처리를 맡겨주도록 요청하는것등 2개항의 처리방안을 마련, 이를 양국정부가 받아들일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日정부와 自民黨의 소식통들은 韓中양국과 외교마찰을 피하면서 교과서검정내용의 기본적인 변경없이 문제의 해결을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전하고 『한국과 중공이 이案을 받아들일지는 확실치않으나 정부로서는 최대한의 외교적노력을 기울여 이러한 처리방안의 범주에서 교과서검정문제를 타결할 생각』이라고말했다.

한편 自民黨文敎部會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교과서 검정 내용을 시정하는 대신 전쟁에의 책임과 반성, 한국·중공등과의 우호관계를 강조하는 서술을 새검정교과서에 넣는 선에서 교과서검정문제로 빚어진 한국·중공과의 마찰을 해결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自民黨文敎部會가 내놓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새검정교과서에 ①과거의 전쟁에서일본이 한국과 중국에 가한 피해와 책임을 깊이반성한다②韓中양국과는 앞으로도 계속 우호친선관계를 유지하는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③국교정상화때의 韓日공동성명및 日中 공동성명의 정신을 앞으로도 계속 지킨다는 내용을 첨가하는것으로돼있다.

이에앞서 스즈끼(鈴木善幸)일본수상은 교과서검정의 시정문제에대한 문부성과 외무성의 서로 엇갈린 견해를 조정, 하나의 통일된 의사로 집약할 방침임을 시사했는데 스즈끼수상은 10일 사꾸라우찌·요시오(櫻內義雄)외상의 교과서검정기술의 정정가능성과 이를 부정한 오가와·헤이지(小川平二)문부상의 발언에 언급, 『외무성은 외교적인 배려의 관점에서, 문부성은 문부성의 입장』에서 발언한데서 빚어진 모순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이들두각료의 의견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異見해소 失敗
日特使 中共側과 접촉

【北京11日=聯】일본과中共관리들은 11일 北京에서 현재 양국우호관계를 위협하고 있는 일본교과서 歪曲기술문제에 관해 논의했으나 양국간의 견해차해소에 실패한것이 분명한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소식통들은 이 문제에 관한 첫공식접촉인 3시간에 걸친 이날 회담은 우호적이었으나 진지하고 엄숙한것이었다고 말해 중공측이 강경자세를 늦추지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회담에는 중공측에서 외무성 아주국장 肖向前, 일본측 대표는외무성정보문화국장 하시모또·히로시(橋本恕)등이 참석했다.

일본소식통들은 이들 일본 대표가 원래 11일 귀국하려던 일정을 늦추어 12일 혹은 13일까지 북경에 머물며서회담을계속할것이라고말했다.

政府、今明 2단계對應策
관계部處 협의
"歪曲"신속是正 강력促求

정부는 11일 일본의 역사교과서 歪曲문제와 관련, 關係部處간의 對策협의를 갖고 歪曲부분시정에 관한 일본측의 분명하고도 신속한회답을 거듭 강력히 촉구키로 방침을 세웠다.

정부의 이같은방침은 지난 3일 우리정부가 교과서歪曲에관해 신속하고도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備忘錄을 마에다(前田利一)駐韓日本대사를통해 전달했는데도 일본정부는 1주일이지난 현재까지 이에대한 명확한 태도표명을 보류한채 문제해결을 지연시키려는 기미가보여 우리정부의 확고한의지를 표명하기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금명간 보다 효과적인 제2단계 後續對應策을 마련, 발표할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관계부처간의 협의에서는 외교적인 조치를포함한 다각적인 대응책이 논의된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관계자는 금명간에 있을 조치와 관련, 『한 차원높은 외교조치를 포함한 정부및 민간차원의 대응조치가 마련된것으로 안다』고말하고 『정부는 일본측이 늦어도 이달중순까지는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줄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한 소식통은 『우리측의 강력한 是正촉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部處간 異見조정을 이유로 시정조치를 지연시키고 있는것은 지극히 유감된일』이라고 지적하고 『우리정부는 歪曲史實의 시정이 아닌 어떤문제해결의 접근방법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소식통은이어『일본측이 교과서 문제에 대해 시정할 의사가 있다면 문제해결에있어 의견조정을 위한 시간이나 冷却期가 필요한것은 절대아니다』고 강조하고『일본정부는 韓日관계의 장래를 위해서도 조속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성의를 보여야할것』이라고 덧붙였다.

帝國主義침략행위 合理化하려는妄想
文公部、마쓰노妄言 규탄

문공부당국자는 11일 일본의 마쓰노(松野幸泰)국토청장관이 지난 9일 日本의 韓半島식민지화와 대륙침략은 列強의 식민지쟁탈전이 격심했던 시대적배경으로보아 불가피했던 정세인것같이 발언한데대해『이같은 발언은 일본의 과거 帝國主의적침략행위와 식민지정책을 합리화하려는 妄想』이라고反駁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일본帝國主의의 역사적罪科는 世界스스로가 인정하고있고 世界史가 公認하고있는 사실로서 지금에와서 復古的鄕愁에 사로잡혀 歪曲된 발상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일』이라고지적하고『이는 과거 일본帝國주의침략에 의해 피해를 입었던 아시아여러나라로 하여금 장래 일본의 進路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하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金鉉奬 文富軾 사형·崔基植神父 3년宣告

「歪曲」是正촉구 內外서 격렬
駐韓日 은행직원들

주한 日本계 4개 은행에 종사하고있는 2백여 한국인 금융노조원들은 11일 하오6시 서울汝矣島 금융노조 사무실에 모여 일본의 국사교과서 왜곡규탄대회를가졌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그 동안 공분을 누르고 은인자중한 가운데 사태추이를 주시해 왔으나 일본의 오만무례한 태도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일본이 왜곡교과서 내용을 시정치않을 경우 일체의 노무제공 거부도 불사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教科書小委 설치

【東京10日=聯】日·韓의원연맹은 10일하오 국회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교과서문제를 협의한끝에 교과서문제에 대한 韓·日양국간의 상호이해를 돈독히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소위원회를 이연맹안에 설치키로 결정했다.

한국일보

533-2361

暴炎씻는 물보라 사나이

◇찌는듯한 더위 아래서 수상 스키어가 푸른 강물을 가르며 날으듯 달리고 있다。그 뒤를 따라 물보라와 무지개가 시원스럽게 퍼져나가고 있다。【11일하오 광나루유원지에서 金海雲기자찍음】

社會漫評

完全 무장?!

대한赤十字社 총재 劉彰順씨 내정

대한적십자사는 金溶植총재의 후임으로 劉彰順전국무총리를 선임키로 내정했다.

서울 올림픽조직위원장을 겸직하고있는 金총재는 앞으로 올림픽업무에만전념케 된다.

法院長級인사
서울高法 金洪根 大邱高法 朴貞根 光州高法 裵錫

대법원은 11일법원장급 인사를단행, 서울고법원장에金洪根〈사진左〉대구고법원장에朴貞根〈사진中〉광주고법원장을 전보하고 光州고법원장에 裵錫〈사진右〉전주지법원장을승진발령했다.

全州지법원장에는 金潤燮 濟州지법원장이, 濟州지법원장에는金碩周대구고법수석부장이전보됐다.〈명단2면〉

사우디·臺灣등巡訪 柳民韓黨총재 出國

柳致松 民韓黨총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자유중국 정부의 초청을 받고 이들 국가를 공식방문키 위해 11일하오9시 空路出國했다.

柳총재는 이들 국가를 방문하는 동안 그곳 政界지도자들과 만나 양국의 우호증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특히 사우디에서는 就業중인 근로자들을 찾아 위문할 계획이다.

文部相에 抗議書翰

【나가사끼10日=聯】나가사끼(長崎)에서 열린 국제反核회의에 참석한 45명의 각국대표들은 9일 물의를 빚고있는 日本교과서문제와 관련, 오가와·헤이지(小川平二)문부상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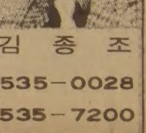
美·英·서독·이탈리아·필리핀등 세계 16개국 대표들은 日本교과서분규가 어느 한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역사교과서를 개정한 일본의 先例가 다른 많은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地平線

미국은 「記者의 天國」이라 할수있을 것 같다. 기사거리가 될 보고서들이 끊임 없이 쏟아져 나온다. 정부나 의회서 나오는 보고서는 기자들에게는 공짜로 배부된다. 외국특파원들도 미국기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 그냥 얻을수가 있다. 학술단체나 연구기관도 그연구원이 보고서(책)를 펴내고 기자회견을할 때면 그 책을 무료로 기자들에게 제공한다. 미민주당의 두뇌로 우리들에게 익히 알려진 브루킹스연구소는 한달에 한번 꼴로 기자회견을 마련한다. ▼얼마전 미의회를 둘러싼 섹스추문이 보도되었지만 별할일이 없어 몇몇 의원들이 섹스방향으로 빠져들었다고 혹시라도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 판단한것일게다. 미의회는 그야말로 어떤분야에관해서도 없는 보고서가없다. 수많은 미의회 분과위원회가 매일처럼청문회를 연다. 그것은 곧보고서로 나타 난다. ▼워싱턴에 자리잡고 있는 외교 정책분석연구소는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과 주한 미군을 철수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이익이된다고 최근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33만7천 駐歐미군을 5년간에 걸쳐 철수시키는데 1백70억달러가 들것으로 미국방성이 계산했다고 이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보고서는 미국방예산의 40~60%가 北大西洋동맹(나토) 방위에 충당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로 유럽에 있는 미군철수를 역설한 이 보고서는 한국군을 現代化해서 주한미군도 철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해외주둔 미군을 철수하고 그대신 해군과 신속배치군강화에 토대둔 세계전략을 새로 수립할때가왔다고 이보고서는 밝혔다. ▼이같은美세계전략論이 처음 얼굴을내미는것은아니다. 미군이베트남서철수할 때 아시아地上전투에는 개입치않는 이른바「沿岸戰略」이 미국에서 거론되곤 했었다. 학술연구지에 비치는 이「沿岸戰略」이 미국의 주된 흐름은 물론 아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미해병대를 多國籍 中東平和軍의 하나로 레바논에 派兵할 원칙을 세우고 있다. ▼60년대에 이미 駐歐미군철수를 주장했던 마이크·맨스필드駐日美大使는 얼마전 美日기자 회견서 카터의 주한미지상군 감축정책을 지지한것은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올해79세의 맨스필드大使는 민주당 상원원내총무를지낸 巨物政治大使다. 맨스필드大使는 60년대초에 韓半島中立化案을 주창했던 민주당 비둘기派의 旗手였다. 진보적이었던 맨스필드大使마저 주한미군철수지지가 실수였다고 한것을 보면 北韓의 南侵위협이 한층더 현실감을 풍겨준다. 北韓이 군사모험주의에서 벗어나 번영하는太平洋時代에 눈을 돌릴수는없을까.

구독신청은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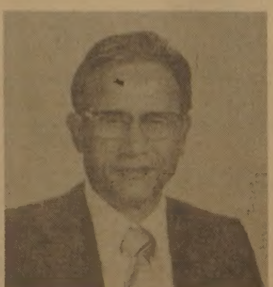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나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출발에서 도착까지.'

즐거운 서울방문은!
도와드리겠읍니다.

서울행 매주 출발
이민, 방문 초청안내
국내, 국제항공표
535-6004 535-8801
신속, 정확한 컴퓨터 써비스
서울여행사
IATA
631 A BLOOR ST. W. TORONTO
최 동 주 R.293-9970

박윤선목사 사경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 4:9) 이 함께 하시는 헤아릴 수 없는 능력은
하나님 의 선물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한
심령들이 진정 해갈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 시: 8월20일~22일(금, 토, 일)
저녁 7:30, 아침 10:00(토)
장 소: 중앙장로교회
(502 Bathurst St. &College St.)

강사소개:
미국 웨스터민스터신학교졸
(신학박사)
현 합동신학원장
총회신학교장 역임
고려신학교장 역임
저서: 성경주석(전20권)
주최: 세계복음운동
토론토지회
☎: 270-3092, 431-7391
귀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초대합니다
키치너 제일장로교회가 세파를 헤치고 항해한지 1년이 지났읍니다. 노도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항해를 계속한 이 모든 힘은 주님께서 우리의 선장이 되시고, 알게 모르게 기도하여 주신 성도님들의 사랑이었읍니다.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께 드립니다. 아뢰옵기는 한국이 낳은 개혁 주의 신학자 박윤선 박사님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창립 1주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저 하오니 이 복된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옵 기를 바라나이다.
설교자: 박 윤 선 목사
일 시: 8월22일(주일) 낮 12:30
장 소: 키치너 제일장로교회
350 Park Street, Kitchener, Ont.
☎: (519)744-9696
(519)886-6479
1982년 8월12일
초청자: 키치너 제일장로교회
당회장 김선윤목사 제직일동

미테랑 내년 韓·中방문

세송佛外相 歸國회견 "訪韓중 양국마찰 없었다"

【파리10日=聯】클로드·세송프랑스외상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순방을 마치고 9일 귀국, 기자들에게 프랑스와·미테랑대통령이 내년에 한국과 중국을 공식방문할것이라고 말했다고 10일 파리의 사회당계 일간 르·마땡이 보도했다. 르·마땡紙는 세송외상의 이번 아시아방문은 프랑스의 북한승인문제와 관련, 한국방문이 『가장 미묘』한것으로 한국과 프랑스간에 마찰이 있을것으로 예상됐었으나 그같은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세송외상은 서방국가들이 북한을 승인하고 공산국가들이 한국을 승인토록 권장함으로써 한국통일의 촉진을 희망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아직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북한승인문제에 대해 결정한바 없다』고 밝힌것으로 이신문은 전했다.

한편·코티디앙·드·파리紙는 제16면의신간 특기사에서 프랑스가 북한을 승인할 결심인것같다고 보도, 정부의 그같은 자세를 신랄히 비난했다.

印서 輸入냉동새우 콜레라保菌 日폐기

【東京10日NAAS=聯】일본 요꼬하마(橫濱)검역당국은 10일 印度로부터 이달초 日本에 수입된 냉동새우 가운데 일부가 콜레라균을보균하고있는 것으로 밝혀내고 東京의 한수입업자에대해 이들 새우를 폐기처분하도록지시했다.

요꼬하마 검역당국은 이날 수입된 냉동새우 8톤중에서 엘·토르·오가와형의 콜레라균을 검출했다고 밝히고 『이들 새우는 지난달 20일 印度의 코친港에서 선적돼 이달초 日本으로 수입된5백43톤의 냉동새우가운데 일부』라고 말했다.

그런데 수입새우에 콜레라균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기는 금년들어 이번이 다섯번째라고 검역당국은 덧붙였다.

PLO 2~3일內 撤收

이스라엘、美包括案 잠정수락

시리아서 無制限 인수

◇PLO의 이機 應射 팔레스타인게릴라들이 10일 西베이루트를 다시 공습한 이스라엘전투기들을 향해 蘇聯製對空砲를 쏘아대고있다. 【베이루트10日AP聯=聯合】

【예루살렘·워싱턴10日外信=聯】西베이루트에 갇힌 6천~9천명의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제3국에 소개시키려는 외교중재협상은 이스라엘정부가 10일 필립·하비브 美中東특사가 제시한 포괄적인 새 계획을 원칙적으로 잠정수락함에 따라 급진전을 보여 앞으로 2~3일을 고비로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의 西베이루트철수가 실현될것이 확실시되고있다.

이와 때를 맞춰 이탈리아 國防省소식통들은 베이루트 배치 多國籍국제평화유지군에 참여하는 이탈리아軍(포병5백29명·장교1백4명)이 만반의 출동태세를 갖췄다고 전했으며 시리아관영 SANA통신은 시리아가 PLO의 희망대로 무제한의 팔레스타인 게릴라를 받아들일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파리의 군사소식통들은 상륙정1척과 보급선1척 및 여타선박 1척으로 구성된 프랑스함대가 이미 레바논부근 東地中海해역에 출동중이며 국제평화군에 참여할 프랑스육군도 출동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이날 이스라엘이 미국측 청사진을 원칙승인키로 한데대해 환영을 표시하고 심각한 現레바논위기가 곧 해결될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말했다.

美國측보도들은 이스라엘의 새 계획이 레바논 이스라엘 PLO가 이에 공식동의하는대로 빠른시일안에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전했다.

이 보도들은 또 팔레스타인 戰士들과 지도자들이 동시에 陸路와 海上을통해 이틀동안에 걸쳐 일부는 요르단으로, 다른일부는 버스편으로 시리아로 갈것이라고말했다.

베이루트의 외교소식통들은 요르단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 4개국이 팔레스타인철수병력을 받아들일 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또 국제평화유지군은 8백명의 프랑스軍과 역시 8백명의 美해병, 5백명의 이탈리아 軍으로 구성될 것이라면서 팔레스타인측은 이스라엘軍의 先철수를고집하지 않고있다고 전했다.

美헬리콥터機 착륙 베이루트 北쪽15km

【니코시아11日AP聯=聯】미국 헬리콥터機들이 10일밤 베이루트 북쪽15km지점인 주니에항지역에 착륙했다고 이곳에서 청취된 관영 레바논 방송이 11일 보도했다.

이방송은 헬機들이 군대를 싣고있는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수일동안 미국관리들이 주니에항의 해변에 헬기로 내렸으나 그곳엔 국제평화군의 상륙을 막기위한 이스라엘군이 주둔해있었다고 이방송은 전했다.

테레사修女 레바논에 파견

敎皇특사자격 메시지휴대

【바티칸시티10日ANSA·UPI=聯】교황요한·바오로2세는 10일 노벨평화상수상자인 테레사수녀를 교황특사자격으로 베이루트에파견했다.

테레사수녀는 이날 베이루트로가는길에 니코시아에 기착, 레바논에 도착하는대로 모든 분쟁당사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교황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교황은 이스라엘의 베이루트포위로 말미암은 수천명의 희생자들에 대한 그의 지지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테레사수녀를 특사로 파견했다.

테레사수녀는 출발에 앞서 교황하계별장 예배당에서 교황과 함께 미사를 드린후 수녀6명을 대동하고 베이루트방문길에 올랐다.

그녀는 니코시아로부터 선편으로 레바논의 주니에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伊 현首相에 새 內閣위촉

페르티니大統領 스파돌리니 再任命할듯

【로마10日外信=聯】산드로·페르티니 이탈리아 대통령은 이탈리아의 5黨聯政이 붕괴된 가운데 10일 이탈리아 政界지도자들과의 이틀간의 會談을 마치고 11일중으로 새 수상을지명할것으로보인다.

페르티니대통령은 이와관련 11일하오5시(韓國시간)에 지오바니·스파돌리니이탈리아수상과 대통령관저에서 만날 예정이다.

정계소식통들은 이로 미루어 스파돌리니수상이 새로운 내각구성을 위촉받을 것이라는예상이확인됐다고말했다.

中共、홍콩主權회복 시도

홍콩紙 97년 英租借만료이후

【홍콩11日UPI=聯】중공은영국에대한 租借기간이 만료되는오는 1997년이후 홍콩을 다스릴 지방장관을 선거나 임명을 통해 취임시켜 홍콩에 대한 주권을 회복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홍콩의 스탠더드紙가 11일보도했다.

이신문은 홍콩에 있는 중공계 휴가관의 중간간부들에게 홍콩을 중공의 통치아래 두려는 그같은 계획이 통고됐다고 밝히고 中共당국은 1997년이후 홍콩에 대한 통치권을 장악하기위한 여론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이들중견간부들에게 이같은 계획을 그들의 동료들에게 유포토록 허용했다고 말했다.

◇美서 가장 新鮮한 여인 美國의가장 신선한 연인의 대명사인 83년도 미스·내셔널·틴에이저로 선발된 앨라배마州몽고메리출신의 스테파니·레이·힉스양(18)이 활짝 웃어보이고 있다. 【뉴욕11日UPI聯=聯】

海外토픽

아직 수백만奴隷 ★英서폭로 中南美·印度에

中南美와 印度등지에는 아직도 수백만의사람들이 노예와비슷한 비참한상태에 놓여있다고 영국의 노예반대협회(ASS)보고서가 9일 폭로.

이보고서는 종래의 노예도가 지금은 거의 사라졌으나 그대신 아녀자매매·강제결혼·매춘·강제노동및 부채상환을 위한 노동등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도가 등장해 이들에대한 철저한착취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네바=UPI】

賣春을 자전거團束 ★騎馬경찰 말발굽소리 헛탕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매춘행위단속을위해 묘안을 궁리한끝에 자전거10대를 도입, 자전거순찰반을 편성했다고.

경찰은 최근 시내중심가정화작업을 펼치면서 기마경찰을 동원하여 매춘행위단속을 시도했으나 말발굽소리에 놀란 매춘행위자들이 미리 도망치는바람에 실패를 거듭, 이에 묘안을 찾던중 소리가 작은 자전거를 쓰기로 결정한 경찰은 『골목에서 어슬렁거리는 매춘족속들을 단속하고야 말겠다』고 장담. 【로스앤젤레스=聯】

잠자리눈크기 時計 ★蘇민스크서 전시중

소련의 한 초미니제품 제작전문가가 잠자리눈알만한 크기의 초미니시계를 만들어 백러시아의 수도 민스크에서 전시중이다. 【모스크바=PTI】

먼로死因 다시調査 ★LA당국만장일치로可決

美로스앤젤레스郡당국은 20년전 약물과용으로 자살한것으로 알려진 은막의 섹스·심벌 마릴린·먼로의 死因을 지방검사에게 재조사토록 요청할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한쪽父母아동 急增 ★美 18세이하 5명중1명꼴

미국에서는 작년에 18세이하의 자녀5명당 1명이 부모중 어느한쪽과 살고있었으며 이같은 수치는 70년보다 54% 증가한 것이라고 美인구조사국이 공개.

이보고서는 81년에 부부1천쌍중 1백9쌍꼴로이혼, 70년의 1천쌍중 47쌍에 비해 2배이상 증가했다고 지적. 【워싱턴=UPI】

百95法令 失效판정 法制處

法令 정비작업을 진행하고있는 법제처는 현실상으로는 유효하나 실제로 效力이없는 53개의 법률과 1백42개의 大統領令등 모두 1백95개 法令에대해 11일 失效판정을했다.

법제처는 또 제정목적이 달성됐거나 與件의 변화로 적용가능성이 없는 9개법률도 폐지하고 類似법률 6개를 部處간의 협의를거쳐 통합할 방침이다.

이번에 폐지되거나 失效판정된 법령중에는 61년에 제정된 국가재건최고회의법과 革命재판소및 혁명검찰부조직법등이 포함돼 있다.

533·2381

年例행사 戰爭物영화

일본의 8·15는 침략전쟁에대한 반성은 덮어두고 패전의 울분만이 강조되고있다.

戰犯제1호인 도오죠·히데끼(東條英機)가 어느덧 태평양전쟁의 영웅으로 그려진 8·15특집영화 「大日本帝國」이 7일부터 일본전국내에서 일제히 개봉, 인기속에 상영되고 있다.

8·15를 전후한 일본의 행사는 침략전쟁을 뉘우치는 기색은 찾아 볼수없고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끼(長崎)에 투하된 원자폭탄에의한 참혹상과 함께 원한만을 강조한 기념행사와 스즈끼(鈴木)수상을 비롯한 전각료가 군국주의의 상징인 靖國神社에 참배하는 것이다.

태평양전쟁으로 2천만명이상의 타민족이 살상됐던 과거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한 죄의식은 이처럼 깨끗이 잊어 버려가고있다.

다만原爆피해자로서의입장만이 남아 강조되고있다.

8·15를 전후해서 신문과 방송은 태평양전쟁을통해 겪은 전쟁의 참상을 연일 보도함으로써 패전에대한 통분과 反美감정만을불러 일으키고있다.

교과서 歪曲 몰고온

日本의 実相 <6>

日용맹성·美英 잔학그려

젊은世代 전쟁유혹 助長

1945년8월6일 히로시마에이어 9일 나가사끼에 떨어진 원폭이 일본의 침략전쟁을 종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전쟁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줌으로써 침략에 신음했던 아시아각국의 많은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되찾을 수있었다는 점에관해서 일본은 추호의 반성도 하지 않는다.

다만 일본은 평화롭게살고있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미국이 원폭을투하, 30만명의 무고한 생명을앗아간 것처럼 왜곡보도하고 이같은 핵폭탄은 지구상에서 없애야 한다는 군축과 核금지운동을 벌이고있다.

8·15가 되면 일본은 예외없이 전쟁시리즈영화를 만들어 군국주의의 복고풍조에 한몫을 더해준다.

재작년에는 노기(乃木)대장의 旅順공략을그린 전쟁물인 「203高地」가 2백만명의 관객을 끌었으며 작년에는 세계최대의 전함 「야마도(大和)의최후」를 그린 「聯合함대」가 젊은층에 인기를 모았다.

금년에는 7일부터 일제히 개봉된 도오죠를 영웅화시킨 「大日本帝國」이절찬리에 상영되고 있다.

영화 「大日本帝國」은 眞珠灣기습공격으로부터 패전에 이르기까지의 태평양전쟁과정을 통한 일본군의 승전기록을 중심으로 강국일본을 그려냈으며 특히전범자인 도오죠를 클로스업시켜 전황을 구하고 일본의 국체를 유지케했다는 점을 인상깊게 그렸다.

싱가포르공략과 사이판島의 옥쇄에 이르기까지의 처절한 전쟁장면은 일본군의 용감성과는 대조적으로 미국군과 영국군의 잔학성을 묘사, 反美무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천황히로히또(裕仁)가 평화애호주의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도오죠의 행위는 일본국가를 유지하기위한 자위적인 행위였다고 결론지은 데 있다.

이영화대로라면 일본의 군국주의의 침략전쟁은 정당한 것이 된다.

이런 맥락속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교과서의 왜곡기술도 이뤄진것.

영화는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는 어전회의의 장면을 그리고 있다. 이회의에서 천황은 각료들의 찬반의견을 다 듣고난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나의 생각을 말하겠다.

반대론(전쟁)의 의견을 잘 들었다. 나는 세계의현실과 국내의 정세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 더이상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나로서 할수있는 일은 무엇이든지하겠다.

국민앞에 언제든지 마이크를 통해 말하겠다』고말하여 항복을 결심했다는것이다.

천황의 항복결정장면과 함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의 원폭투하후 처참한 아비귀환의 장면이 비춰진다. 이영화의 마지막장면에서 도오죠의 영웅像은 한껏 부각된다.

항복결정으로 도오죠는 자결하려다가 연합군이 천황을 전범자로 처형, 일본국체를 근본적으로 뒤집어놓을것이라는 판단에서 전범재판에 나설것을 결심한다.

도오죠는 전범재판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이전쟁의 책임은 나혼자에 있다. 천황을 비롯 다른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다. 내가 책임이라고 말한것은 패전에대한 국내의책임이다. 태평양전쟁의 개전은 독립국인 일본으로서 자존·자립을 위해 불가피했다.

수상으로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 바른일을 했다고 믿는다. 이재판은 승리자의 정치적 재판이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도오죠의 이 마지막진술은 관객들로 하여금 태평양전쟁의 정당성을 강력히 인상지워주는데 충분했다.

영화 「大日本帝國」은 태평양전쟁은 불가피했고 대륙침략과 동남아제국의 무력강점은 전쟁논리상 어쩔수 없었다는점을 강조하고있다.

反戰영화제작자인 이데(井出晴己)씨는 『태평양전쟁을 합리화시키는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것은 극히 위험스러운 일이다. 「203高地」「聯合함대」에 이어 「大日本帝國」은 젊은세대에게 전쟁의 유혹을 불러일으키는데 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전쟁물의 제작은 군국주의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비난했다.

「聯合함대」등 이어 올해엔 「大日本帝國」

이같은 비난에 대해 「大日本帝國」의 각본을쓴 가사하라(笠原)씨는 『자기나라 국민이 행한 전쟁을 침략전쟁이라고 규정해 버린다면 일본의 민족적 에네르기는 다시는 되찾을수 없다』고 말하고 『과거역사를 의도적으로 미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쁘게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렇듯 일본사회의 右傾化물결속에서 스즈끼수상을 비롯한 전각료가 오는 8월15일 야스꾸니(靖國)神社에 반공식적으로 참배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하는등 일본은 군사대국으로 달려가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속에서 고교교과서의 왜곡기술은 한단계 한단계씩 이뤄지고 있는것이다. 【東京11日=宋孝彬특파원】

◇7日 일본전국에서 개봉된 終戰기념영화 「大日本帝國」이 인기속에 상영되고있다. 이 영화는 태평양전쟁의 戰犯 東條를 국가적 영웅으로 묘사하는등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다. 【宋孝彬특파원=東京支社전송】

메아리

無안내양

金聖佑 <編輯委員>

안내양 없는 시내버스가 서울에 등장했다. 시민의 자율정신을 시험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한다.

구미각국에서는 안내양 있는 버스가 오히려 이상하다.

파리의 경우, 시내버스는 물론 운전사 혼자다. 지하철표가 그대로버스표로 통용되기 때문에 표가진 사람은 버스에타면서 표를 자동기계에 넣어 개찰을 하면되고 운전사는 표없는 사람에게 표를팔기만한다. 표값은 표를미리사가지고 타는것보다 비싸다. 차가발차하면 운전사는 다음에설 정류장이 어디라는 것을 마이크로 간단히 안내를 한다. 파리의 시내버스는 구간제여서 2구간을 가려면 표 두장을 개찰해야한다. 그러나 이것을 감시하는 사람은 없다. 운전사는 전혀 상관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대신 어쩌다 한번씩 검표원이 버스에 탄다. 표를 안가졌거나 2구간을 가면서 표를 한장밖에 안가졌거나하는승객은 벌금을 물게된다. 대개의 경우 걸리는 사람은 별로 없고 간혹 외국인이 잘몰라서 구간위반으로 적발되는수가 있다. 파리의 버스는 평상시 아무 소란없이 조용히 잘도구른다.

시외버스도 안내양 없기는 마찬가지다. 운전사가 혼자표팔고 표받고 하지만 定時를 어기는 일이 없다.

서울에서도 몇년전부터 이무안내양제도를 들여오려고 했으나 가끔 삥땅사고가 나기도하는 안내양보다 시민들을 더 믿을수없어서 업자들이 보류해왔다고 들린다. 이제 시민을믿어보겠다니 신뢰하는 사회의 건설을위해서도 반가운일이다.

외국에서 안내양없는 시내버스를 처음 타봤을때 우선은부러웠고 그다음에는 무엇에서 풀려난듯한 해방감에서 날을듯했다. 부러웠던것은 우리나라에서도언제쯤버스에안내양을 태우지않을만큼 인력이귀하게될까하는생각때문이었다. 무안내양제도가 이제 우리나라도 남아돌아가는 싸구려인력이 없어져간다는증거라면 여간 다행한일이아니겠다.

그렇다면 날을듯한 해방감은 왠가.

나는 우리나라의 국민성은 시내버스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온 사람이다. 요즘은 좋은 버스가 생기고 자가용이 늘고하여 많이 사정이 달라졌다. 그러나 얼마전까지만해도 아침 출근길의 시내 버스는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 정류장에서 50미터, 1백미터의 거리를 이리뛰고 저리뛰고하여 간신히 만원버스를집어타면 그때부터 안내양의 안내를 받는것이 아니라 호령을 들어야한다. 버스는 연료 힘으로 구른다기보다는 안내양의 고함과 닦달과 짜증의 힘으로 달린다. 자칫하면 안내양의 야단을 맞기 일쑤다. 빨리 안타도 핀잔이요, 빨리 안내려도 핀잔이다. 어쩌다가 잔돈이라도 안가졌거나 할라치면 창피를 바가지로 둘러쓴다. 그 많은 사람들앞에서 단단히 망신을 당하고는 끌려 내려지듯이 버스를 내린다. 후유하고 한숨을 쉬고 나면 아침부터 진이 다 빠져있다.

이 사람이 직장에 가면 종일 안내양의 앙칼진 목소리가 귀에 남는다. 그 분풀이 직장의 동료나 부하들에게 삿대질이 되고 잔소리가 된다. 명랑할수가 없다. 그러다가 다시 퇴근길에서 또 한바탕 안내양에게 당하고 나면 온 하루의 분풀이를 집안에 쏟아놓게 된다. 화목할수가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친절한것이 사실이라면 이 국민성은 그당시의 시내버스에서 더욱 배양된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걸핏하면 高聲이요 악다구니질인것은 시내버스의 그 아우성이 키운것이다.

한 사회에 그 사회의 音調의 기준이 되는 基音이라는 것이 있다면 나는 몇년전까지의 그 안내양들의 목소리가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基音이 되어온다고 말하고 싶다.

이제 「안내양 있는 버스」의 시대가 가기 시작한다고 한다. 새로운 국민성이 만들어질 시대가 오고있다는 말이다.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SINCE 1909~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셰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FINCH / LEON'S / MCLEVIN / SHEPPARD / MARKHAM / HWY. 401

맛 사 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왜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토럭,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의문

MLS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VARIETY STORES
주매상 $14,000 Rent $4,000 9년+10년 가격 $225,000
주매상 $14,500 Rent $5,000 9년+10년 가격 $225,000
주매상 $8,500 Rent $800 4년+5년 가격 $110,000
주매상 $7,000 Rent $1,720 4년+10년 가격 $75,000

VARIETY STORE와 BUILDING
1)주매상 $11,000 코거빌딩 다운타운, 아파트 5채, 가격 가게 $129,000 빌딩 $269,000 현금다운 $150,000.00
2)주매상 $7,500 코거빌딩 다운타운 가격 가게 $70,000 빌딩 $360,000 아파트 4채 현금다운 $200,000.00

DONUT SHOPS
1)주매상 $8,500 Rent $2,250 $350,000
2)주매상 $6,500 Rent $3,000 $200,000

VARIETY STORE LOCATION
1) Indoor Mall Rent $7.00/SQF, 5 Years+5 Years Side 2100 SQF, 2)개인 Building Rent $6.00/SQF, 1500SQF, 5 Years+5 Years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TEL(416)449—8644~5(B) · 286—1548(R) M3B 1Z3

해외民族紙게재 (1910~1920년)

◇新韓民報(1913년)에 실린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한국사람의 생각」이란제목의 풍자만화. 「먹을수록 맛이가 좋와 남어지마자 주그려」하는 욱일(日人)을 향하여 「예다 자~ 받아라 하나 둘 셋 넷 탕탕탕탕」하고 쏘아대는 韓人(韓人)의 총소리를 삽화에 덧붙이고있다.

◇新韓民報(1913년8월29일자)「韓國에 대한 日本의 行事」라는 제목의 만화. 세번째 國恥日을 맞아 露·日전쟁이후 한국과 일본사이에 체결된 條約전부를 낱낱이 보도하는데 일본의 일방적인 위협과 공갈때문에 이뤄진것임을 꼬집고 있다.

國內신문에 게재(1900~1910년)

◇大韓民報1909년6월12일자에실린 한국인 고리대금.도박자를 풍자한 그림. 「松峴風波 不幾日에 엇던者는 밤중에 몸다러서 저짓시 왼짓시야 比類는皆一般이아…」라며 친일파를 공박한다. 總辦이란者가 화투짝을 손에 들고 日人 고리대금업자로부터 돈뭉치를 받는다.

◇1910년 6월14일자의 大韓民報. 日帝의 경찰방지에 대한 풍자만화. 경찰관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어디를가」하자 면민은 겁에질려 「나는 아무관계 없는데…」라고 묘사. 한일합방 직전 그들의 탄압을 일반민중에게 암시하고 있다.

한국 초창기의 新聞時事漫畵

예리한 對日풍자

大韓民報는 1면中央에 매일 固定欄
美洲에서 발간한 新韓民報 신랄하게

李 海 暢 〈前 梨大교수〉

한국만화의 발생을 다른나라와 견주어볼때 비교적 뒤늦은바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성장발전이 熱意있게 신중하면서 빠른걸음으로 자아의진로를 찾았다.

한마디로 만화라하지만 만화도 그種類는 여러가지가있다. 요즈음 흔이찾아 볼수있는 만화의 종류로는 連載만화 아동만화 가정만화 정치만화 사회만화 성인만화와 극화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하다.

이들 만화중에서도 정치만평이나 사회만평 같은것은 일찍부터 한국저널리즘에 오르내리고 시사만화로서의 존재의의를 크게 과시하면서 신문잡지등의 독자대중과 친근한 반려가 되고있다.

외국의 시사만평도 매한가지이지만 한국의시사만화는 그 시초가 프레임(Frame)시사만화로서 첫선을 보여주었다. 만화의 표기도 처음에는 만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않고 삽화라는 표기용어를 사용하였다.

1909년8월2일 처음으로 대한민보의 창간과동시에 신문제1면 諷刺畵欄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大韓民報는 당시의 민족단체인 大韓協會의 機關紙적인 역할을 떠맡고 국민지식의보급과 國權挽回를위하여 발간되던 민족의 신문이었다.그래서 풍자만화의 취재대상도 민족주의적인 주관적경향으로 일관하여 그사명을 다하기에 바빴다.

만화의 묘사는 주로 貫齋 李道榮화백이 담당하였다. 1909년 舊韓國의신문검열사무가 統監府로 이관된다음부터 만화의 押收削除도 몇차례나 경험하였다. 舊韓末 韓日合併을앞두고 日帝의 신문탄압은 더욱 더 우심해졌다. 合併調印을 전후하여 日帝는 大韓民報의 발행을 정지시켰다. 이 조치는 민족대변지의 언론활동을 제지시키고자하는 日帝의 악랄한 술책이었다.

그래서 大韓民報는 1910년 8월18일 제353호를 발간하고 1주일간 정간처분을 당하였다. 이리하여 국가존망 危機之時에 보도와 평론으로 그 책임을 다하지못하고 免責할 방도를 찾을길이 없던 大韓民報는 合併調印이끝난다음 8월26일 제354호로서 다시 속간되어 독자앞에 나타나게 되었다. 속간되던 이날 만화는 속간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독자들을 묘사했다.

大韓民報이외에 民族紙로서 시사만화를 중요시한 신문으로는 美洲에서 발행되던 新韓民報를 들수있다. 당시 新韓民報는 日帝의 감시를 받지않고 그곳에서 자유로운 신문제작을 할수있었다. 時事諷刺만화도 國恥日이 오면 반드시 신문에 게재하고 민족의 각성이 있기를 촉구하였다.

新韓民報의 전신인 共立新報는 1905년11월22일 창간되었다.

이즈음 국내에서는 日帝의 강압에 못이겨 乙巳保護條約의 勒約을 체결하던때이었다. 그러나 당시 共立新報는 毛筆로써 石版인쇄를하던 시기이었기때문에 이조약에대한 상세한 보도와 비평을하지못하였다. 國民會가 조직되고 新韓民報라고 제호를 개칭한다음 지면도쇄신되고 諷刺漫畵도 지상에 등장하게되었다. 그러나 조국의 운명은 기울게되는 勒約에 못이겨 결국 韓日合併의 비운을 겪지않으면 안되게되었다. 新韓民報는국권회복과 자주독립을 위하여 신문의 사명을다하기 위하여 힘썼다.

그리고 國恥日인 8월29일에는 이날을 기념하고 욕된 이날을 설욕하고자 힘썼다. 민족의 각종 수난을 國恥日을 期하여 민중에게알리고 민족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暗示한 만화가 또 실렸다.

이날 신문특집에는 풍자만화외에 논설로써 최용선씨의 「슬픔에오는 자각의오늘」이라는 기념사와 두번이나 新韓民報의 주간을 지낸바있는 李大偉씨의 논문도 게재하고있다.

이밖에 布哇島에서 민족지 「太平洋週報」가 잡지형으로 발간되고 있었는데 1945년3월24일자 同紙표지에는 同志會의 3대강령을 발표하고 그 하단에는 다음같은 닭이우는 그림을 묘사하고 해방이 멀지않아 찾아오게 될것이라는것을 암시해주고있다.

초기신문만화를 일별하였는데 국내에서 발간된 大韓民報나 美洲에서발행된 新韓民報의 풍자만화는 한국초기의 시사만화로서 모두 프레임만화를 즐겨 묘사하였다.

시사만화의 주류는 예전부터 프레임漫畵가 중심이고 그원점이기도 한것이다. 이 프레임만화는 회화묘사에있어서 사가의 특징을 순간적으로 잘나타나게 할수있는것으로 이전부터 내외저널리즘에서 흔이들 즐겨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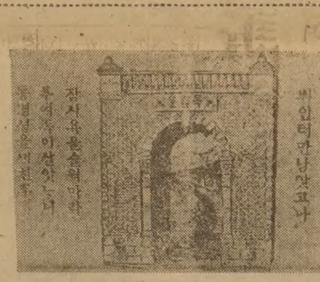
【필자의저서 「한국時事漫畵史」에서】

◇大韓民報 1909년9월2일자에 실린 親日官吏 야유삽화. 日帝의 舊韓國軍 군대해산에 반대하는 의병운동이 전국곳곳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랑곳없이 빼기고다니는 軍部大臣 李秉武를 그렸다. 「利劍一柄武士傑 벗거벗고 환도찼군」이라는 설명이 붙어있다.

◇新韓民報(1918년), 제8회 國恥日을 또다시 조명했다. 일본으로부터 한반도에 몰려오는 독사와 여우무리들을 그리고 백성들이 북으로 밀리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배일이 그 빛을 변함이여 흑운이 한밤명었으며 또산이 그 주인을 일음이여…」 가슴아픈 묘사다.

◇新韓民報(1917년), 제7회 國恥日을 맞아 地圖와 함께 「슬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장차 밝아지리라」라는 설명을 붙였다. 지도위에 해불을 날아오르는女神을 그려 그 뜻을 더욱 간절히 나타내려했다.

◇大韓民報 1910년6월24일자. 東學敎主孫秉熙를 배반하고 매국단체 一進會를 조직, 회장이된 李容九를 야유했다. 회초리를든 면민이 「기른개가 발뒤꿈치를 물어」라며 개를 향해 꾸짖는다.



◇新韓民報(1913년8월29일자). 세번째 國恥日을 맞아 민족독립의 상징인 獨立門을 그리고 자주독립을 찌하자는 내용의 詩를 실어 민족의 단합을 구하고있다.

◇大韓民報1909년12월7일자. 日帝의 走狗인 一進會가 한일합병성명서를 발표한데 대한 국민의 분격을 표현했다. 「魔記者야 汝亦黨賓者焉 敢히 新論悖說을 提唱하난다」며 신랄한 공격을 퍼붓고 있는 내용이다.

◇兪吉濬著 「勞動夜學讀本」1908년7월13일字에실린 兪吉濬과 노동자와의 대답 삽화. 「여보 나라 위하야 일하오.또 사람은 배화야 합니다」라는 격려에 「네 공부소 그리 하오리다」라 답한다. 민족敎化啓蒙내용이 담겨있다.

◇新韓民報(1909년)에 실린 「日本사람이 생각하는 新韓國報」이란 제목의 풍자만화. 新韓民報는 美洲, 하와이의 독립운동단체 國民會에서 발행한 民族紙다. 족두리를 쓰고 한복차림을 한 여인이 日本軍人한테 시집을 가는 모양을 그려 친일파의 사고·행동을 비꼬았다.

◇新韓民報(1916년8월29일자)의 삽화. 大韓이라는 國號를 크게 써 놓고 그옆에 좌우로 太極旗를 묘사, 「나의 혈혼 죽지 않고 살아 있소. 지금까지 붉으기만 하시구려 내안이 도라오릿가」라는 설명을 붙였다. 大韓의 조속한 부활을 간절히 요망하는 마음을 읽을수 있다.

◇大韓民報1910년8월26일자. 8월22일 合邦調印日을전후해민족대변지의 활동을 봉쇄하느라 19~25일까지 통감부는 大韓民報에 대해 신문발행 정지명령을 내렸었다. 26일자로 다시속간된 신문을 보고 기뻐하는 민중들의 모습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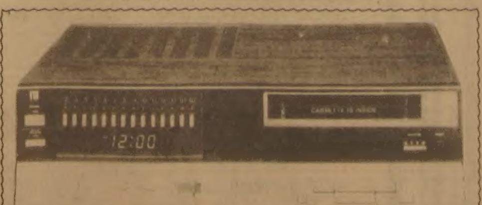
Super 여름철 비데오 특별대매출

교민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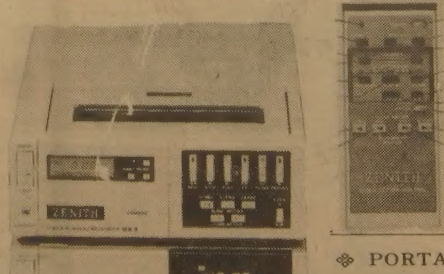
금번 신형 제니스 비데오 SET를 구비해서 아직 비데오를 구입치 못하신 분을 위해 여름철 마지막 세일을 시도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일차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대표 전 광재 올림

HOME UNIT : 특별세일 $899.00

—— Model No. VR 89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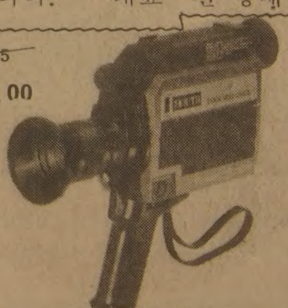


ZENITH



REG. ~~$3,17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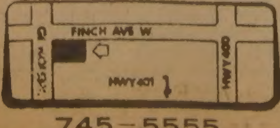
NOW. $2495.00



❖ PORTABLE VIDEO
❖ RECORD & PLAYER WITH CAMERA(WIRELESS 무선)
❖ REMOTE CONTROL포함

·24 HOUR AUTO RECORDER
·PICTURE SPEED SEARCH
·TOUCH COMMAND CHANNEL SE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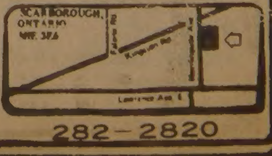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아카데미 T.V.& STEREO CO.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길
255 MORNINGSIDE AVE



282-2820

관련被告人16명 전원有罪

美文化院사건宣告 "法저촉 聖職者 실형못면해"

金恩淑·李美玉엔 無期 柳承烈·崔寅純·金志禧 15년

【釜山=崔鎔植기자】부산미문화원방화및 불온유인물살포사건의 배후조종자인 金鉉奬피고인과 주범 文富軾피고인에게 검찰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됐다. 또 이들을 은닉도피시켜준 가톨릭原州교구 사무국장겸 교육원장 崔基植신부에게는 징역3년에 자격정지3년(구형 징역5년 자격정지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安文泰부장판사, 주심 申瑀澈, 배석 洪光植판사)는 11일상오9시30분 부산지법 제1호법정에서 이사건 관련피고인 16명(불구속기소 1명포함) 전원이 출정한 가운데 선고공판을 열고 金·文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위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계엄법위반,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 죄등을 적용 이같이 선고하고 방화범행주모자인 金恩淑(24) 李美玉(20) 피고인에게도 같은죄를 적용, 무기를 선고했다.

崔신부에게는 국가보안법상의 편의제공죄와 형법상의 범인은닉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또 방화범행에 적극가담한 柳承烈(20) 崔寅純(20) 金志禧(21) 피고인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15년에 자격정지 15년씩을 선고했다. 이밖의 관련학생들에 대해서도 각각 최고징역7년, 자격정지 7년에서 최하 징역4년 자격정지 4년까지가 선고됐으며 文피고인등을 숨겨준 原州치악산서점주인 金英愛피고인(25)에게는 징역3년 자격정지3년이 선고됐다.

또 原州성당관리인 文吉煥피고인(36)에게는 징역3년 자격정지3년에 집행유예4년이, 불구속기소됐던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회계 李昌馥피고인(43)에게는 징역2년 자격정지2년에 집행유예3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로써 이사건 관련피고인 16명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으며 14명이 실형을, 2명이 형의집행이 유예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이사건은 공판과정에서 ▲崔신부가 방화사건이 발생한 지난3월18일이후 金鉉奬피고인에게 편의를 제공한것이 국가보안법위반인지의 여부 ▲학생들이 북괴를 이롭게한다는 인식이 있었느냐의 여부 ▲金鉉奬피고인의 방화사건 가담여부 ▲비라살포조인 朴願植·崔忠彦피고인이 방화를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등이 논란이 됐으나 피고인및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제반증거로봐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崔신부에대해『金鉉奬피고인등을 은닉·도피케한것이 교회법에 정해진 비호권에서 비롯된것으로 신부로서의 목회활동에 포함된다할지라도 그행위가 실정법에 저촉되는한 실정법의 적용을 거부할수없을뿐 아니라 실형을 면할수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崔신부가 金피고인등을 은닉·도피케한 전후사정이나 편의를 제공한 정도 ▲특히 光州사태에관련된 金피고인과 光州사태에대한 평가및 인식을 같이하며 그를 은신시켜준점 ▲金피고인의 좌경학습화주도를 묵인격려한것은 정당한 목회활동에 포함된다고 인정할수없다고 밝히고『이러한행위가 과연 신부로서 마땅한일인가 의심하지 않을수없으며 위법성을 피할수 없는 것은물론 처벌을 면할수도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金鉉奬피고인에 대해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혁에 대한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에 대한 의식화학습을 극한적인 좌경성향으로 유도했으며 ▲방화범행의 발상과 실행을 지령했고 ▲북침준비완료등과 같은 북괴노선에 정면으로 동조하는 선동구호의 사용을 지시한점등으로 미루어 최고형에 처해 마땅하다고 판시하고 文富軾피고인에 대해서도 ▲사전에 방화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방화때까지 가담학생들이 서로 모르도록 점조직으로 조직화했으며 ▲불온유인물을 직접 작성함은 물론 방화계획서를 만들어 범행을 분담시키고 ▲현장에서 이들을 지휘하는등 범행을 완벽하게 실행한점등으로 볼때 역시 최고형을 면할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관련학생들에대해서도『나이가 어린 학생신분이며 金·文피고인등으로부터 잘못된 생각이 주입된점등은 일말의 동정이 가나 사회주의혁명사상에 깊이 물들어 방화범행의 준비과정에서부터 적극가담했고, 범행현장에서 불을지르거나 범행목적을 알리는 불온유인물을 살포하는등 범행숫법이 용이주도했으며 대담했다는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해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조사받을때 고문받은것은 아니나 경찰에서부터 임의성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돼 동일한 진술을 한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수없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정에는 검찰에서 釜山지검 金斗壽공안부장과 공안부 崔炳國 張昌浩검사등 간여검사6명전원이 출석했으나 변호인들은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로써 이사건은 발생(3월18일) 1백56일만에, 기소(4월29일)된지 1백14일만에 1차적인 사법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사건 첫공판은 지난6월15일에 열려 그동안 이날 선고공판까지 모두11회의 공판을 거쳤다.

◇선고공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들어가고있는 崔基植신부와 文富軾, 金鉉奬피고인 (右로부터)。

◇피고인별 선고형량

피고인	나이	직업	선고형량	구형량	적용죄명
金鉉奬	32	무직	사형	사형	국가보안법, 계엄법, 현주건물방화치사상
文富軾	23	高神大 4년 제적	사형	사형	국가보안법, 집시법, 현주건물방화치사상
金恩淑	23	高神大 4년	무기	무기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柳承烈	20	釜山大 3년	징역, 자격정지15년	무기	국가보안법, 집시법,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朴願植	19	高神大 2년	징역, 자격정지 7년	징역10년 자격정지 10년	〃
崔忠彦	19	〃	징역 7~5년 자격정지 7년	징역10~5년 자격정지10년	〃
李美玉	20	〃	무기	무기	〃
崔寅純	20	釜山大 3년	징역, 자격정지15년	〃	〃
金志禧	21	釜山女大 3년	〃	〃	〃
朴貞美	22	釜山女大 4년	징역, 자격정지 4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국가보안법, 집시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崔基植	39	신부	징역, 자격정지 3년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국가보안법, 범인은닉
文吉煥	36	성당 관리인	징역,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인은닉
金英愛	25	서점상	징역, 자격정지 3년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 범인도피
許珍洙	24	한국기독교장로회전국청년회부회장	징역 2년	징역 3년	계엄법, 집시법, 범인도피
金華石	22	釜山大 3년 제적	징역 3년	징역 5년	계엄법, 범인도피, 집시법, 특수공무집행방해
李昌馥	43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회계	징역,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국가보안법

집시법=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崔신부등 抗訴뜻밝혀

神父·修女등 방청석서 귀기울여 內外信記者 40여명도 취재 경쟁

○…이날 선고공판이 열린 釜山지법 제1호법정은 지난번 결심공판때와는 달리 개정전에는 피고인들이 서로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등 부드러운 분위기였으나 재판부가 입정하고 선고문이 낭독될때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공판은 상오9시30분 정각 재판부의 입정과함께 시작됐으며 재판장 安文泰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을 두줄로 일으켜세운뒤 약20분간에 걸쳐 준엄한 목소리로 판결문요지를 읽어내려갔다.

선고순간 崔신부는 고개를 약간쳐들면서 재판부를 응시했고 文富軾 金恩淑피고인도 각오했었다는듯 표정의 변화없이 정면만을 바라보았다.

○…이날방청석에는 原州교구 池學淳주교 이용석신부 서울한강성당 咸世雄신부 仁川교구 박승원신부 全州교구 정석현신부등 15명가량의 신부와 10여명의 수녀들이 공판을 지켜보았다. 池주교는 이날상오9시10분께 釜山지법에 도착, 내외취재진들이 각종질문공세를 폈으나 시종침묵을 지킨채 9시30분께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공판에는 또 뉴욕타임즈 UPI·AP·ABC·NBC·TV등 내외신기자 40여명이 취재를 벌였다.

○…이날 金鉉奬피고인은 어머니가『현장아』하고 부르자 뒤돌아보며『내이름 부르지 마세요. 현장이는 없어요』라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기도 했다.

金의 여동생 金현선양(22)은 9시께 다른 피고인 가족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가면서『오빠의 형량이 보다 가볍게 되기를 신께 기도했다』며『오빠에게 신의 은총이 있기를 빈다』고 울먹였다.

○…崔신부는 기자석의 기자들이 보고 있던 신문에서 李·張부부 어음사기사건 기사를 보고『그사이 저런일이 다 있었느냐』고 놀라면서『지금까지의 소식을 전혀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선고직후『한국말을 몰라 선고내용을 잘모르겠다』던 매그너 주한미대사관 釜山사무소장은 金·文피고인등에게 사형이 선고됐다고 기자들이 전해주자『슬픈일』이라고 간단히 코멘트.

○…이날 釜山지법 주변에는 정사복경찰관 2백여명이 배치돼 삼엄한 경계를 폈다. 이때문에 다른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을 보러온 일반면회인들은 영문을 모르고『張여인사건보다 더큰 재판이 있느냐』며 서로 묻기도했다.

○…선고가 끝난뒤 崔신부등 피고인대부분은 항소할뜻을 분명히했다. 특히 崔신부는『설사 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해도 무죄가 아닌한 항소할것』이라고 말했다.

金斗壽부장검사는『재판부에서 잘알아서 판결했을 것이다』면서 언급을 피했고 재판부역시『판결문으로 다말했으므로 더이상 할말이 없다』며 노코멘트.

○…재판부는 공판중간중간에 의문점이 있을때마다 합의과정을 거쳤으며 지난2일 결심공판직후부터 판결문 초고작성에 들어갔었다는것. 판결문은 타이프지 1백47페이지 분량으로 지난번 李·張사건 판결문과 거의비슷한 양인데 판결주문은 安부장판사가 직접 타이핑한것이라고 전했다.

남녀大學生33명 한때遭難

雉岳山등반 10시간지나 救助

夏季수련大會 참가 裝備없이 올라

【原州】강원 原州에서 열린 대학생 하계수련대회에 참가했던 남녀대학생 33명이 등산장비도 없이 해발 1천2백88m인 雉岳山정상에 올랐다가 하산길에 조난, 경찰구조대에의해 10시간30분만에 전원 구조됐다.

10일하오 3시30분께 高麗大 농경학과4년 김동환군(26)등 13명과 德成여대3년 전행정양(22)등 20명이 등산장비도 없이 등반에나서 3시간만인 하오6시30분께 雉岳山정상인 시루봉에 오른후 하산길에 허기에지쳐 길을 잃고 헤매다가 해발 7백m지점인 입석대계곡에서 조난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등반에 참가하지않고 原州에서 기다리던 高麗大商大4년 장원기군(24)이 11일새벽 1시께 原州경찰서에 신고함으로써 알려졌는데 경찰은 10명의 경찰을 동원, 4시간동안 수색한 끝에 11일상오5시께 입석대계곡에서 이들을 발견, 무사히 하산시켰다.【聯】

입원被疑者 逃走

"돈받으러가자" 監視戰警꾀어

【議政府】경기 加平경찰서에 구속돼 신병으로 議政府市 議政府동 성모병원 216호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전과11범 李粉玉씨(31·여·서울 龍山區 東部二村洞 공무원아파트 301의65)가 11일 새벽3시께 감시하던 議政府경찰서 虎院파출소소속 趙相衡상경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趙상경에 따르면 李여인이 잠을자다 갑자기 돈17만원을 받아올데가 있으니 같이가자고해 함께 병원을 출발, 서울 龍山區 東部二村洞 공무원아파트앞에 도착, 잠시 기다리라고한뒤 사라져버렸다는것.

李여인은 평소 안면이있는 趙모씨(33·여)에게 옹담등을 사주겠다고속여 17만원을 가로채 지난 6월22일 경기 加平경찰서에 구속됐다가 6일후인 28일 위장출혈등의 증세를 일으켜 議政府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었다.【聯】

東大 慶州大學長 金仁鴻교수 부임

【慶州】東國대학교 慶州대학 제3대 학장에 본교 金仁鴻교수(49·정치학박사)가 11일 부임했다.

신임 金학장은 東國大 정외과교수, 기획조정실장, 교무처장, 불교대학장서리등을 역임했다.【聯】

酒客5명 轢殺

새벽 滿醉트럭 酒店으로 突進

7명 重傷

【大邱】11일새벽0시40분께 大邱市西區飛山洞554 北飛山로터리 부근에서 대구7아3862호 8톤트럭(운전사 이홍운·28)이 도로옆 간이주점인 우리집 식당(주인 鄭淵植·29)을 들이받아 주점에서 술을마시던 이중환씨(28·大邱市西區飛山6洞561)등 5명이 그자리서 숨지고 김기홍씨(23·大邱市西區飛山1區628)등 7명이 중상을입고 大邱東山기독병원등에 분산 가료중이다.

이날사고는 大邱市中區達城洞 서문시장에 화물을 내려놓고 부근술집에서 술을마신 운전사 이씨가 차고가있는 西區坪里洞으로 트럭을 과속으로몰고 北飛山 로터리를 직진하다 사고지점에서 핸들을 잘못꺾어 일어났다.

이날 사상자들은 우리집식당에서 밤늦게까지 술을마시다 변을당했는데 왼쪽팔에 부상을입은 이중헌씨(25·大邱市西區飛山1洞569)에 의하면 친구3명과함께 술을마시던중 갑자기 문이부서지면서 트럭이 술집안으로 뛰어들어왔다고 말했다.

사고당시 주점에는 15명의 손님이 술을 마시고있었는데 사상자는 대부분 도로변 문입구에 앉았던 손님들이다.

한편 식당주인 鄭씨도 트럭에 받혀 중태이나 운전사 이씨는 다치지 않았다.

◇사망자명단 ▲김경화(19·西區坪里洞) ▲한보현(25·〃飛山6洞561) ▲김영애(여28·우리집식당여주인) ▲박우규(20·西區飛山洞525) ▲이중환(28·〃飛山6洞561)

◇중상자 ▲이용석(27·西區坪里1洞1058의4) ▲오길환(26·〃坪里3洞1393의6) ▲정동철(29·〃飛山1洞712의8) ▲정연식(30·우리집식당주인) 외3명【聯】

5行뉴스

◆慶山에 急性눈병크게번져

【慶山】최근경북慶山지방에 급성안결막염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크게 번지고있는데 10일에는 嶺南大체육관에서 하계훈련중이던 경북씨름선수단원 40명이 이눈병에 걸려25명이 귀가했다.【聯】

代父

仁川교도소 忠義소년隊長 洪鍾式씨

세계唯一의 矜持…35년간 再犯없어

仁川교도소 忠義소년대의「아버지」인 洪鍾式씨(58·사진)는 사회가「이색적」인 눈길을 보내는게 불만이다. 지난 4일 [illegible]에서 열린 보이스카우트 잼버리에서도 소년대가 취주악 좀 연주했다고 사회가 그런 시선으로 보았다고 불평한다.

이들의 얼굴 어딘가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고 유니폼도 어색해 보이지만 이들도 어엿한 소년대로 조금도 손색이 없다는 주장. 그러한 사회의 색안경을 낀 눈길이 소년수를 또 낳게 하는 한 원인이 된다고 꼬집는다.

洪씨는 소년수들의 [illegible]리를 누구보다도 잘안다. 지난 6월말 仁川교도소 보안계장으로 정년퇴직할때까지 평생을 소년수들과 같이해, 소년수들의 마음 씀씀이는 그의 눈을 벗어날 수 없다.

그는 47년 仁川교도소 교도관으로 출발, 35년간 소년수들과 어울려 지냈다. [illegible] 교도소를 떠나 [illegible] 없다.

洪씨가 소년수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6·25가 끝나가던 53년 7월. 전쟁고아들이 거리를 방황하는 것을 보고 어른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져야하고, 청소년범죄자에게는 소년에게 알맞은 교도행정을 펴야한다는 생각에서였다.

눈을 돌린 것이 보이스카우트 활동이었다. 소년수들로 보이스카우트로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忠義소년대를 조직했다. 보이스카우트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던 때라 어려움도 많았다. 그러나 소년수들에게「긍지」를 심어준다는 뜻에서 꾸준히 밀고 나갔다. 정년퇴직할때까지 4천8백명의 소년수스카우트를 길러냈다.

이들 중에선 목사·교수·공무원·교사등이 배출됐지만 그 보다도 4천8백명 중 재범자가 한명도 없다는것이 洪씨의 보람이자 자랑이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대로 따라 한다는것」과「직업적인 청소년지도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illegible] 경험이자 느낌이다.

『청소년들의 비행이 [illegible] 보다는 어른들에 대한 불신감이 [illegible] 어진 거겠지요』그의 소년관도 역시「이색적」이다.【茂朱=鄭乘鎬 기자】

서울35.5度…全國이비지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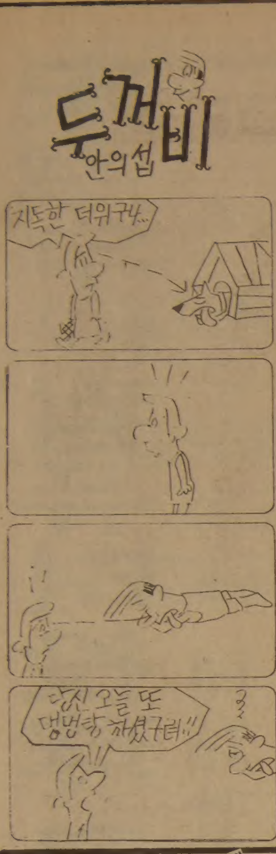
水道·電力사용量 최고 기록

三伏더위가 막바지인 11일 서울지방이 35.5도까지 치솟아 금년들어 가장 무더운 날씨를 기록했고 전국이 대체로 33도이상의 무더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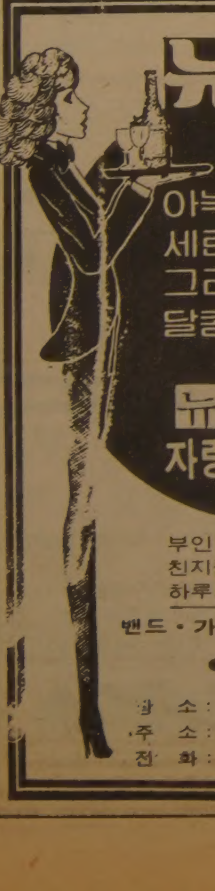
한편 10여일째 폭염이 계속되자 수도물, 전력 사용량이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으며 청량음료, 선풍기 등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한전에 의하면 11일 상오11시8분 전국의 순시 최대 사용량은 6백71만1천kw로 한전창립이래의 최고를 기록했는데 이기록은 지난 7월10일, 8월10일에 이어 금년들어 3번째의 기록경신이다.

수도물생산량도 크게늘어, 서울시의경우 지난5일 하루 3백3만1천1백톤을 생산한데이어 7일에는 3[illegible]만 2천톤까지 올라가며 [illegible] 3백만톤이상을 웃돌고있다.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오리엔탈 팔레스 2층
주 소: 529 BLOOR ST. W.
전 화: 533-3545~6, 533-1500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中國良藥 大量供應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
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416) 977-8858-9
10AM → 8 : 30PM

海城酒家
SEA CASTLE RESTAURANT
— 해성주가 —(구 : Sea King)

한국인 고객여러분, 과거 Sea King레스토랑이 장소를 옮겨 다시 Open했읍니다. 옛정을 잊지마시고 다시 찾아주십시오.

◇순수 중국광동식 음식 ◇일류 요리사들만 채용.
◇특히 해산물 전문. ◇1주내로 술허가 나올예정.

● 매일 OPEN(일요일포함) 오전10시~새벽3시까지

591 Gerrad St. E. (제랄드×브로드뷰)
새빌딩 Unit B1, B2, B3 (아래층지하실)
☎ 465-8272

김명종한약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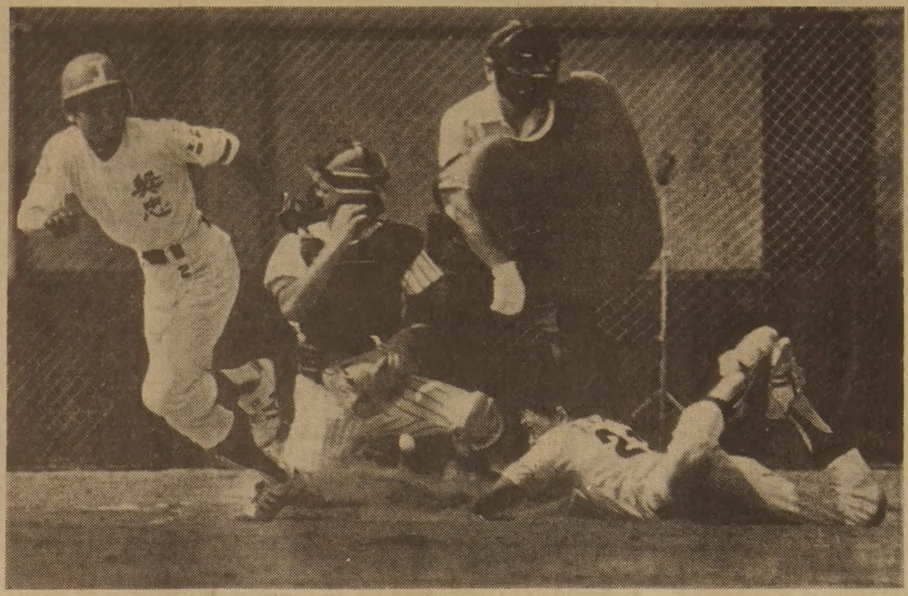
침·보약(탕약과 에스키 약제). 심신 모두 피로·기혈부족·신경과민·노이로제·허리병·근육통·부인병·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빙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 411
☎: 745-2058

奬忠、世光꺾고 8強에

6·4



◇홈인 不發뒤 다시 홈인 奬忠高와 世光高의 격전, 1회초 奬忠의 3루주자 金勳(右)이 히트앤드런작전에 맞춰 홈으로 뛰어들었으나 林大煥(左)의 타구가 파울이되어 金은 3루로 되돌아갔다。그러나 林은 안타를쳐내 金을 홈인시켰다。

宋津宇(世光) 컴퓨터投球 고장…猛追擊허사

4·4 同點만들었다 다시 2點잃어

제12회 봉황대기고교야구

奬忠高가 대붕기 준우승팀 世光高를 6-4로 격파, 중반에 접어든 봉황대기 대회에 파란을 일으켰다。11일 서울운동장서 벌어진 제12회봉황대기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11일째 3회전 경기서 奬忠高는 고장난世光高좌완선발 宋津宇를 통타, 게임을 주도하며 8회초 데드볼로 출루했던 林大煥이 世光高포수 李想鐵의 뼈아픈 패스트볼로 결승점을 올려 6-4로 승리, 가장먼저 8강에 도약했다。뛰어난 컨트롤을 자랑하던 世光高 에이스 宋津宇는 초반6안타를 얻어맞고 두차례나 악송구를 범해 자멸했다。

제11일

◇제11일 3회전

장충고	103	000	011	6
세광고	002	000	200	4

▲장충투수=李善泰 포수=林大煥 ▲세광투수=宋津宇(1·9회) 崔東昌(6회) 포수=李想鐵 ▲안타=장충9-11세광

奬忠高-世光高

컴퓨터에 이상이 생긴 것인가。世光 왼손 에이스宋津宇는 난조였다。

奬忠은 1회초 첫공격에서 선두1번 金勳이 宋津宇와 신경전을 벌이다가 제5구를 우전안타로 날렸다。金勳은 보내기번트와 2死후 4번 林大煥의 중전 적시타로 선제 1점을 올렸다。世光이 기대하던 宋津宇는 1회초에만 3안타를 맞고 3振으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다。宋의 식은땀이 미처마르기도전에 奬忠은 3회초집중3안타를 날리며 기세를올렸다。

1死후 2번 朴奎湜이 초구를때려 좌월2루타로 찬스를 만들었고 3번 吳然豊은 3루강습내야안타로 1、3루의 찬스를 만들었다。

4번 林大煥이 투수앞에 스퀴즈 번트를 시도、이타구를 잡은 투수宋津宇가 1루에 악송구했으며 다시 1루수가 3루주자를 견제하려다 악송구를 범해 순식간에 2점을 얻었다。

奬忠의 에이스 투수겸 5번타자 李善泰는 흔들리는 宋津宇를 중전적시타로 강타、1점을 추가해 4-0의 리드를 잡았다。

그러나 만만히 물러설 世光이 아니었다。전열을 가다듬은 世光은 3회말 2死후 9번宋津宇와 1번盧載龍의 연속 좌전안타에 奬忠좌익수의 범실로 1점、2번玄相根의 중전적시타로 2점째를 기록、추격에 나섰다。

6회초 핀치에서 崔東昌에게 마운드를넘기고 1루수로 물러난 宋津宇는 타격에서불발、빚을 갚았다。

世光은 7회말 구원투수로 나섰던 6번崔東昌의 중전안타를 발판으로 2안타와 1개의 희생타를 더해 2점을 만회 4-4의 동점을만드는데 성공했다。

행운은 끝내 奬忠의 편이었다。8회초선두4번 林大煥이 世光구원투수 崔東昌의 투구를 맞아 진루、보내기번트와 후속땅볼로 3루에서기다리다 世光포수 李想鐵의패스트볼로 홈을밟아 불로소득의 결승점을 올렸다。9회초 奬忠은 포볼로나간 선두8번 金大植을 보내기번트와 야수선택、2번 朴奎湜의 센터희생 플라이로 홈에 맞아들여 6-4로 승리를 굳혔다。

봉황스타

奬忠 4번打者 林大煥

첫打點·決勝點수훈 올려

奬忠高4번타자 林大煥(3년)은 世光高와대전에서 첫 타점과 결승점을뽑아내 奬忠高승리의 주역이 됐다。

公州商、慶南商과의 대전서도 6타수4안타를 기록한 강타자 林은 평소 아웃코너를 좋아하나 이날 감독의 지시대로 홈프레이트에서 멀리 떨어져 상대방투수의 인코너를 공략한것이 적중했다며 싱글벙글。8회초 데드볼을 맞고나가 결승점을 올렸을때는 아프기는 했지만 루상에 나갈수 있게되어 무엇보다 기뻤다고。포수로서 奬忠中 1년때부터 李善泰와 콤비를 이루었다는 林은 이날『善泰가 평소보다 아웃코너와 슬라이더가 잘먹혀 상대방타자들을 쉽게공략 할수있었다』고 말했다。

쉬는날에는 善泰와함께 낚시를 가는것이 취미。최근 약한어깨를 보완하려고 드로잉과 손목운동에 주력한다는 林은 열심히 노력해 대학에 진학하겠다고 다짐。상업을 하는 林萬英씨(52)의 3남중 막내。키 1m76、체중 65㎏。

스카우트戰場

"名手를 잡아라…" 技倆체크에 血眼

◇柳仲逸 ◇安聖洙 ◇金宗奭 ◇李常勳 ◇呂泰九

高校 야구선수 모두 선뵈는 大會

大學·實業팀 감독도 總集結

金龍權(마산고) 李善泰(장충고)등이 새로운스타로 팬들의 각광을 받고있다。

전국의 모든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鳳凰대회는 우수선수들을 노리는 대학 및 실업팀감독들의 치열한 스카웃戰場。

감독들은 대부분 유능한 선수들을 점찍어놓은 상태지만 마지막으로 숨겨졌던 眞珠들을 발굴하느라 혈안이 돼있다。

이미 초반40게임을 치르는동안 각팀선수들은 제각기 닦은기량을 유감없이 나타내 보였으며 지금까지 중앙무대서 크게 돋보일기회가없던 呂泰九(동산고)金龍權(마산고) 李善泰(장충고)등이 스카우터들의 주목을 끌고있다。

대학감독들은 각팀선수들의 묘기를 분석하는가하면 또 이미 확보해놓은 선수들의 기량을 확인、새로운팀의 설계를 머리속으로 그리고있다。

지금 鳳凰장을 누비는 고교스타들이 내년에는 과연어느대학팀의 유니폼을 입고 나타날 것인가。

올 전국대회서 한번씩정상에 올랐던 釜山高、慶北高、北一高、群山商의 내년봄 졸업선수들이 대부분대학진학을 선택하고 있다。

비교적 일찍감치 손을뻗치기시작한 漢陽大는 금년도 고교야구의 최고스타로 불리는 慶北高유격수 柳仲逸、北一高의 에이스투수 安聖洙와 3번타자趙龍鎬、大邱高4번 張泰洙등 금년도 투타의 주역들을 대량확보、쾌재를 부르고있다。釜山高좌완 에이스 金宗奭도 漢陽大와 교섭중。

한편 北一高 부동의 1번타자인 준족 曺良根과 서울의 유일한 고교대표선수 盧熔曄(배재·유격수)은高麗大에진학、내야수비와 기동력을 보강하게 된다。

慶北高의 에이스 투수이자 5번타자인 李常勳은 延世大의 허약한 마운드를 보강할 예정。

또한 지난해부터 청소년대표주전으로 활약한 준족 姜起雄과 거포 朴鍾哲등 大邱高미사일타선의 주축들이 嶺南大의 유니폼을입을 예정이며 釜山高의 홈런타자 黃允泰(중견수)와 釜山商장신투수 李弦澤 역시 동향의 東亞大에서 뛰게될듯。

이밖에 6할타율의 呂泰九(동산)가 仁荷大로 지난대회에 이어 이번대회서도 연속 홈런을 때린 馬山高의 4번타자 金龍權이 建國大로 방향을 굳혔다。

최근 스카웃전에서 계속 뒤져 스타不在로 허덕여온 成均館大에는 고교대표팀의 주전포수인 田龍雨(釜山高)와 유격수 尹熙政(〃)이 새로운 활력소로 합류하게된다。

群山商과 世光高 졸업선수들에게는 東國大로부터 손길이 뻗치고있다。

準準결승부터 蠶室구장으로

鳳凰大旗전국고교야구대회는 15일 준준결승부터 18일 결승전까지 장소를 서울운동장에서 잠실구장으로 옮겨진행된다。

한편 잠실구장에서 열릴예정이던 15일의 OB베어스-MBC靑龍전、18일의 해태타이거스-MBC靑龍전등 프로야구 2게임은 서울운동장으로 옮겨 열리게된다。

오늘밤 南北축구 對決

中央돌파·윙플레이 치중할듯

【싱가포르=千一平특파원】 12일밤 9시45분(한국시간) 이곳서 열리는 아시아 청소년축구 남북대결을 앞두고 이곳에 모인 각국축구 관계자들은 개인기를 기량한 중앙돌파공격(한국)과 윙플레이(북한)의 오열로 승부가 판가름 날것으로 보고있다。

역대 청소년 축구 남북대결서 1승1패를 기록했던 한국은 개인기가 좋은 李基根 申連浩 李太炯등 3선수가 북한의 두터운 중앙수비라인을 돌파, 골을 노릴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수비선수들과 링커진이 수시로 오버래핑 하며 공격을 전개 시키고 있어 한국 선수들은 강인한 정신력으로 그림자처럼 북한선수들을 따라 붙어 그들의 진로를 방해 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中共과 泰國간의 준결승전 역시 승부예측이 어려운 팽팽한 경기이다。

준결승전 90분게임서 승부가 나지 않으면 20분간의 연장전을 벌이고 여기서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 페널티 킥으로 승부를 가리게된다。

李正日 1위차지

단체는 陸軍3士

實業사이클 忠州-公州코스

李正日(보르기오통상)은 11일 忠州-公州간 1백28㎞ 코스서 벌어진 제2회 전국 실업도로 사이클대회 1째 경기서 3시간01분0초85로 朴世龍(육군3사)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忠州-公州간 단체에서는 陸軍3士가 9시간08분28초07로 1위를마크 했으며 서울-公州간(2백89㎞) 종합 기록에서도 陸軍3士가 21시간21분34초41로 1위를 지키고있다。

「교과서歪曲」、스포츠 波及

체육회 韓·日주니어 競技등 延期방침

대한체육회는 日本의 교과서 왜곡사태와 관련,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서 열 예정이던 제10회 韓·日주니어 종합경기대회를 무기연기할 방침을 세웠으며 오는 16일과 18일 서울·釜山서 거행될 예정이던 82년도 한·일 실업축구정기전도 취소되는 등 日本의 교과서 왜곡 파문은 스포츠에도 미치고 있다。비중있는 2개의 경기대회가 갑자기 취소 또는 연기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국내 관중들의 흥분을 자극할지 모른다는 판단 때문인데 14일 서울운동장서 개막될 서울 국제주니어 육상대회와 25일부터 열릴 서울국제오픈 탁구대회에 日本선수들의 출전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프로야구

白仁天、홈런1위合流

MBC、三美를 10·4대파

MBC의 강타자 4번타자 白仁天은 11일 仁川구장서 벌어진 三美 슈퍼스타즈와의 경기서 1회말 좌월2점홈런을 포함한 4타수4안타, 한개의 포볼로 맹타를 과시, 홈런 통산 13개로 프로야구 홈런 더비에서 金奉淵(해태)과 공동1위를 마크했다。타격선두를 고수하고 있는 白은 특히 對三美전서 강해 이날 홈런1개와 2루타2개를 날려 통산 1백76타수 73안타(타율4할1푼5리)로 타격1위, 타점45개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MBC는 이날 12안타를 때려 9안타의 三美에 10-4로 승리 12승4패를 기록하며 단독 2위에 나섰다。三美는 7連敗당해 1승 15패를 기록했다。

◇제11일전적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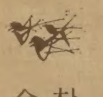
삼 미	000	002	020	4
M B C	300	300	00×	10

▲홈런=白仁天(1회·2점) 申彦皓(2회·2점·이상 MBC)

한국、말聯에逆轉勝

메杯蹴球 2勝1敗

【쿠알라룸푸르10日·베르나마=聯合】한국은 10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속개된 제26회 메르데카배축구대회 A조예선 3차전에서 주최국 말레이시아를 2-1로 제압하고 예선전적 2승1패를 기록했다。



양달 ㉒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87>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수철이 푸듯이 말하고는 흩어진 책사이를 발로 헤치고 책상앞으로 다가가 소퍼에 쪽 파묻혀 파이프를 깊숙이 빨아들였다。이욱교 깊은 시름을 토해내듯 내뿜은 담배연기속에서 지그시 수지를 바라보는 수철의 시선은 오빠라기보다는 아버지였다。

아버지중에도 막내딸쯤 시집보내게 된 노부(老父)처럼 정겹고 시름겨운 눈으로 수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수지는 유리구슬처럼 말똥말똥한 시선으로 수철의 자애롭되 만감이 서린 눈길과 맞부딪쳤다。

『나처럼 귀여운 도둑은 열명쯤 더 있었으면 좋겠다구요? 그럼 이건 뭐에요? 네? 이건 뭐냐말예요』

수철이가 들어올때 거의반사적으로 뒤로감추고있던 신문조각을 그의 코앞으로 들이대며 수지는 날카롭게 따졌다。

수철이는 일순 그 신문지조각이 총부리라도 되는것처럼 핼쑥해졌다。그러나 곧 진짜 총인지 가짜 총인지 알고나서 손을 들든지 대항을 하든지 해야겠다싶을만한 여유가 생긴것같았다。짐짓 낙심한듯 씁쓸하게웃으면서 말했다。

『그게 뭐냐?』

『오빠가 감추셨을텐데 몰라서 묻나요?』

『말을 삼가거라 감추긴』

『그럼 오목이가、우리 수인이가 가족을 찾는 호소를 왜 여기다가 묻어두고 모른척 하셨냐말예요?』

수지는 어느틈에 더운 눈물을 쏟고있었다。

『너도 그걸 보고 우리 수인이 생각을 한거로구나。당연하지。그렇지만 진정해라』

수철이 비통한 목소리로 수지를 달랬다。

『나더러 진정하라구?』

『그래 그 오목이가 우리 수인이란 증거가 어디 있니?우리 식구가 한때 어린 수인이를 오목이라는 애칭으로 불렀다고해서 오씨 성에 목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를 무조건 수인이라고 생각하는건 속단이 지나치지않을까。속단이라기보다는 애정이 지나치다고 해도 좋다。너하고 수인이하고의 우애는어려서부터 각별했지』

『그럼 이걸 왜 오려두었어요?』

『수인이를 내가 얼마나애타게 백방으로 찾았었나는 너도 아마모르진않을거다。한창 그 일로 몸이 달았을때 그런 광고를 보니까 혹시나 해서 찾아가서 확인해볼까도 싶어 그걸 간수했던거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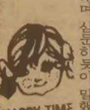
『찾아가서 확인해볼까도 싶었다뇨? 한걸음에 달려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나도 처음엔 그랬다。그렇지만 오씨성에 목이라는 이름을 주장하는 고아를만나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이성을 가지고 차분히 생각해보니 함부로 나설수가 없더구나。오목이란 별명도 흔한 별명은 아니지만 목이란 이름도 흔한 이름은 아냐。그 두개가 우연히 맞아떨어졌다고해서 동일인일수가 있다는 생각은 터무니 없어。그앨 만난다고해서 그밖에 결정적인증거를 잡을 가망은 전혀 없는거 아니니?그애 몸에 남다른 흉이나 특징이 있는것도 아니고서로 나눠가진 신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있잖아요?사람이 얼굴로 서로를 알아보는것 이상가는 믿을만한 신표가 어디 있어요?』

『그럼 수지야。넌 이 사진을 보고 이 아이가 수인이라고 알아보겠더?』

수철이 수지손에서 신문조각을 빼앗아서 코앞에 들이대며 심문하듯이 말했다。



SHANGHAI RESTAURANT

드디어 해삼탕 개시!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한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 매혹의 가수 배성 특별출연 ★★

⊙7, 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Family Product Distributor

도매상과 값을 비교해 보십시요.

저렴한 가격으로 무료 배달($60이상일경우) 합니다.

취급품목

Paper towels, 화장지, Detergent, 각종 Soap, 세탁비누, Pampers, 종이봉지(Paper bag)

87 Green Lane, Unit 10 Thornhill

주문☎ : 889-9757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짬뽕·짜장면 해장국·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Queen / Bay / Temperance St. / Yonge / King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 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 977-9734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den Craft
◉특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R)743-4842 Mr. 마

시설및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K.D.K.Construction Co.
Met. Lic.B4298, Inside & Out
Renovations, Home Repairs,
Carpentry, Dry-Wall
Plastering, Ceiling
Concrete Work, Plumbing
Painting, Wall Papering
Tiles Etc.
· 921-8163
Mr. Reg. Kimura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광고문의 ☎ : 533-2361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Fine Design"
설계및 허가, 시공
전화 : 622-5328 (공장) 676-1173 조 덕 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의류수선 (남녀분 양복·양장 다 취급함)
의자 카바, Zipper 수리등 성의껏 해드립니다.
전화 문의도 환영합니다.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광 고 접 수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균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한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정영수 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천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서 춘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심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R)531-4165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Juice Bar에서 일하실 용모단정한 여자분 구함.
월~금(주말은 쉼) 11:00 a.m~4:00 p.m
전화 : 438-0403 (6시 이후, Mrs. 유)

Grocery & Variety Store Manager구함.
주매상 : $5,000, 보증금 : $10,000
매매도 가함. 전화 : 487-5000

가을까지 지렁이 잡으실분.
전화 : 633-5783 Mr. Lee

9월말에 Open하는 웨이트리스·키친헬퍼 구함.
특히 한국인 구함. 무경험자 환영. Finch 써브웨이 걸어서 5분거리. 전화 826-7676(R) Mr. 모리

성실하고 용모단정한 경험있는 Helper 구함.
(GreenWood & Queen)
전화 : 466-3995

경험있는 남자 풀타임 헬퍼 구함.
전화 : 532-6143 (낮)
532-9638 (밤)

Cashier 여자분 구함(주말 Helper 토·일)
Downtown지역.
전화 : 921-0624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베비시터

Baby Sitter 구함.(Jane & Finch 지역)
전화 : 665-4612

입주하셔서 아기 보아주실분 (4살, 1살)
전화 : 447-1460

바쁘신 분들을 위하여 저희 집에서 아이들을 보아드리겠읍니다. 원하시면 24시간(월 9:00~토 7:00까지)도 가능하며 저희가 데리고오며 데려다 드립니다. 전화 : 651-5388 Mrs.채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전화 : 652-1280 (Mrs. Adroe)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636 Vaughan Rd. #1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 인 회 755-9288
노 년 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여권

여권번호 : MB-137650
성 명 : 이 순자
연락처 : 742-1281 (Mrs. Lee)

매매

(1)건물(Bloor & Christie) $159,000
(2)Coin Laundry & Building $159,000
(3)Variety Store: 주매상 $8,000(스카브로)
(4)Variety Store: 주매상 $4,000+Video(Hamilton)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Canada Permanent Trust Co.

아스킹 : $150,000, 14%, 5Years.
커다란 파킹장을 구비한 모퉁이의 2층 벽조건물
4 Apt. 2 Stores.
년수입(건물에서) : $24,500. 주매상 : $4,000(Stores)
Doris Burda 763-5555
Cholkan Real Estate, Realtor.

Fiat 128 급매. $1,000
Certified. Gas 절약형.
전화 : 762-3247, 533-2364 (Mr. 유)

Store Equipment for Sale
Two Ice Cream Cabinet, One Electronic Scale(1b) & 기타,
전화 : 746-0107, 727-5902

1) Fast Take Out 식당 팝니다.
주매상 : $2,000(일요일 쉼) 5년 리스.
렌트 : $350/M.
2) 5 Ft. 대형 Steam Table 팝니다.
23 Helen St. Miss. Ont. 274-7010 (Mr. 유)

Convenience Store for Sale. (Jane & Bloor)
주매상 : $5,000이상. 리스 : 5년+5년
아스킹 : $45,000+Stock (361 Windermere Ave.)

여자분 혼자서 운영가능한 Mall안에 있는 Variety Store
가정형편상 아주 싼 값에 드립니다. (내방 바람)
1250 South Service Rd. Miss. Ont. (Health Food & Cake)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4,800.
리스 : 3년+5년(Neagotiation) 아스킹 : $39,000+스탁
1000 Pape Ave.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Grocery Store. 주매상 :$7,000
리스 : 2년반+옵션5년. 아스킹 : $70,000+스탁
263 Dunn Ave. Toronto (내방바람)

Store Equipment for Sale
One Ice Cream Cabinet, One Electronic Scale (30 Lb.)
& 기타. 전화: 746-0107(오후8시 이후) 1-727-5902

Private Sale. 파킹장 구비한 상업지역의 Building 매매. 8 Rooms. 어떤 Business에도 적합한 매우 좋은 조건의 위치임. 전화 : 921-9847 (William)

Variety Store for Sale ,
주매상: $4,000~$4,500 Extra 수입: $1,000
아스킹: $45,000+Stock 전화 : 1-525-2115(해밀톤 Mr.Kim)

Building & Snack Bar Business for Sale
Asking: $95,000, Down: $25,000 1st mortgage at 13%. Weekly Turnover : $3,000
(Queen St. W. & East of Dufferin)
Call.Olga Krawec 769-1723
Glen Park Real Estate

Private Sale (Tailoring Store & Building)
Good Location & Good Opportunity
Phone : 533-3888 (Antonio)

Fish & Chips for Sale
주 5일 영업.(Mon.-Fri.: 10:00a.m.-4:00p.m.)
주매상 : $4,000 아스킹 : $179,000 전화 : 759-4761 (Vasos)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Ossington & Bloor)
적당한 가격으로 팔 예정.
전화 : 531-5005(R) 531-1023(B) (Yoly)

(1)시간 짧은 Driving Hamberger Place
주매상: $8,500. 렌트: $1,700. 리스: 1985=5년옵션.
(2)주매상: $6,000. 렌트: $1,800. 리스: 1989+5년옵션.
Mrs. Woo. 전화 : 741-9170(B). 851-4717(R)
A.E.LEPAGE(Ontario)Ltd. Realtor.

구독신청 월~토
☎ : 533-2361

광고문의
☎ : 533-2361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때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O.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O.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O.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CEDARBRAE VOLKSWAGEN
666 Markham Rd. Scarboro.
전화 : 438-1900(B), 499-8589(R) 손명철(Michael son)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서 민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여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백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순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촬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